

첨성대 축조 발원자

Who Proposed to Build Cheomseongdae?

저자 (Authors)	장활식 Chang, Hwal-sik
출처 (Source)	신라문화 49 , 2017.2, 31-64(34 pages) 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SILLA CULTURE 49 , 2017.2, 31-64(34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36391
APA Style	장활식 (2017). 첨성대 축조 발원자. 신라문화, 49, 31-6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31 14:4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첨성대 축조 발원자*

장 활 식**

<目次>

- | | |
|-----------------------|-----------------------|
| I. 머리말 | IV. 첨성대 축조발원자 안함(=안홍) |
| II. 안함(=안홍)의 행적 | V. 맺음말 |
| III. 축조발원자에 대한 기존의 가설 | |

[국문초록] 첨성대 축조발원자로 신종원(1996)은 안홍(579~640), 장윤성·장활식(2009)은 밀본을 지목했으며, 장활식(2016)은 안함(=안홍)의 별호가 '밀본'이었다고 했다. 첨성대연구는 신라밀교의 근본이었던 안함(=안홍)을 첨성대 축조발원자로 지목하였다.

안함(=안홍)은 진평왕 23년(601)부터隋에서 비법과 진문을 학습하고, 진평왕 27년(605)에 귀국하면서 불사리, 『능가경』, 『승만경』뿐만 아니라 『금광명경』, 『관정경』 등의 밀교경전도 신라로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진평왕47년(625)에는 唐에서 서역삼장들을 초빙해 『전단향화성광묘녀경』 역경사업을 펼쳐 덕만공주의 왕위계승을 뒷받침했다. 안함(=안홍)은 『안함기』, 『안홍기』, 『동도성립기』 등으로 칭해진 참서를 통해 신라역사를 재구성하고, 신라에 밀교를 전파하고, 미래 신라를 설계하여 후대에 의해 聖人으로서 평가된 김씨 진골태생의 밀교승려이었다.

본 연구는 첨성대축조 발원자가 안함(=안홍)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첫째, 선덕왕지기삼사의 제 3사 전체 내용이 안함(=안홍)의 예언에 기초한 일연의 서술로 판단되었다. 선덕여왕의 죽을 날은 부험의 영험함이 입증되는 형태로 안함(=안홍)에 의해 예언되었다고 본다. 둘째, 첨성대가 안함(=안홍)의 신라불국토설에 입각한 것임을 입증하는 기록을 『삼국유사』에서 발견했다. 『별기』는 안함(=안홍)의 참서인 『동도성립기』로 드러났다. 셋째, 안함(=안홍)관련기록에 '일연의 코드'가 존재함을 밝혔다. 황룡사의 초주였던 환희사도 역시 안함(=안홍)의 별호였다고 판단되었다. 넷째, 선덕여왕의 장례는 안함(=안홍)이隋에서 가져왔을 『관정경』 제 6권의 탑총장으로 치러졌던 것이다. 첨성대는 선덕여왕의 묘탑이자 영혼의 도리천 상생통로였다.

[영문초록] Who Proposed to Build Cheomseongdae? Cheomseongdae(瞻星臺), known as one of the world's oldest star-gazing tower built during the reign(632~647) of Queen Seondeok(善德女王), is a stone structure located in the former Silla(新羅) Dynasty capital of Gyeongju(慶州). A research suggested that an Esoteric Buddhist monk called AhnHong(安弘) proposed to build the structure. Another research articulated

* 이 논문은 2016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경영정보 전공)

that it was MilBorn(密本) who proposed to build the stupa. A more recent research revealed that MilBorn, of which literal meaning is 'the Root of Secret Buddhism', was an alias for AhnHong.

AhnHong, also known as AhnHaam, went to Sue(隋) in 601 at the age of 23 to study Esoteric Buddhism and returned to Silla in 605 with various sutras that greatly impacted Buddhism in Silla. In 625, he returned this time from Tang(唐) with three Indian Tripiṭaka Masters(三藏法師) who translated an Esoteric sutra titled 『A Mysterious Woman of Sandalwood Incense and Burning Star Lights』(『梅檀香火星光妙女經』) at HwangYoung Temple(黃龍寺). This sutra was for deifying Princess DeokMaan(德曼公主) who became Queen Seondeok as an incarnated Mahāśrī(摩訶室利). Mahāśrī is a Buddhist goddess of happiness and good fortune adopted from a Hindu goddess, Lakṣmī(拉希米). AhnHong desired to construct a Buddha Land in Silla but died in 640. His plan, however, was successfully carried out by Silla people after his death. His Buddha Land Plan included the nine-story wooden pagoda at HwangYong Temple(皇龍寺九層木塔) built in 645, Queen SeonDeok's funeral at Trayastriṃśa(仞利天) carried out in 647, and the Four Deva Temple(四天王寺) below Trayastriṃśa built in 679, and the seven major Buddhist temples in Gyeongju constructed during the 6th and 7th centuries.

This paper examined the plausibility of the claim that Cheomseongdae was proposed to be built by AhnHong, reached at a conclusion that the claim is valid, and came up with additional evidence to support the claim. It turned out that AhnHong was responsible for many prophecies that Silla people truly believed. In his prophetic book, of which one name is 『Chronicles of Eastern Buddhism's Formation』(『東都成立記』), AhnHaam rewrote the history of Silla from the time before Śākyamuni and foretold, based on the rewritten history, the events that would be eventually actualized by the Silla people.

『Left-out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三國遺事』), a 13th century historical text containing the oldest record on Cheomseongdae, simply stated that "According to 『Supplementary Records』(『別記』), Cheomseongdae was built during the reign of Queen Seondeok." Consequently, many researchers had wondered what were written in the records. This paper found evidence from the quoting book that 『Supplementary Records』 were from the prophetic book, 『Chronicles of Eastern Buddhism's Formation』, written by AhnHong.

One known fact in Cheomseongdae research is that the tomb of Queen Seondeok and Cheomseongdae were aligned with the direction of sunrise at the winter solstice. This research found that the locations were determined in such a fashion based on an esoteric sutra called 『Sutra of Consecration』(『灌頂經』) imported very likely by AhnHong. This paper concludes that AhnHong was the esoteric monk who proposed to build Cheomseongdae.

[주제어] 길상천녀(Lakṣmī), 도리천(Trayastriṃśa), 장례(funeral), 윤회(Saṃsāra), 묘탑(stupa).

I. 머리말

신라멸망의 징조는 사천왕사와 황룡사구층탑에서 나타났다. 경명왕 2년(918)에 사천왕사의 벽화 속에서 개가 짓었는데, 고려태조가 즉위한 때이다.¹⁾ 경명왕 3년(919)에 사천왕사 神像의 활줄이 끊어졌는데, 고려가 도읍을 정한 때이다.²⁾ 경명왕 4년(920) 2월에 황룡사구층탑의 그림자가 거꾸로 처박혔는데, 신라의 康州가 고려에 투항한 때이다.³⁾ 경명왕 4년(920) 10월에는 사천왕사 오방신의 활줄이 끊어지고, 벽화 속에서 개가 뛰쳐나왔는데, 고려가 건훤의 공격을 받던 신라를 구원한 때이다.⁴⁾ 황룡사구층탑과 사천왕사는 신라불국토를 수호하던 종교적 표상이었다.

이기동(1981)은 신라가 “불가항력적인 대외위기 속에서 현실구제를 목적으로 (황룡사)구층탑을 만든다거나 혹은 (사천왕사)불교도량에서 밀교의 비법을 행한 것은 선덕여왕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안목이” 되며, 첨성대도 이와 같은 “기원적·주술적·상징적 의미”⁵⁾ 가진다고 했다. 황룡사구층탑, 사천왕사, 첨성대를 모두 밀교적 발상으로 보았다. 한편 고익진(1986)은 황룡사구층탑, 사천왕사, 선덕여왕의 도리천장례가 모두 선구적 밀교승려였던 안함(=안홍)에 의해 예언되었으며, 안함(=안홍)은 신라밀교의 근간을 이룬 밀본, 명랑, 혜통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했다.⁶⁾

신종원(1992)은 황룡사구층탑이 자장, 사천왕사가 명랑에 의해 실현되었지만, 모두가 안함(=안홍)의 신라불국토설을 따른 것이라 했다.⁷⁾ 이 견해는 문헌기록에⁸⁾ 비추어볼 때, 타당하다고 평가된다. 채상식(2001)은 자장이 안함(=안홍)의 신라불국토설을 “계승하여 완성”시켰다고 했고, 옥나영(2007)은 안함(=안홍)이 “황룡사에 구층탑을 건립할 것으로 제안”했다고 했고, 장지훈(2001)은 “자장과 명랑에게서 보이는 밀교적 호국사상”은 안함(=안홍)에서 비롯되었다고 했고, 신용철(2007)은 “명랑의 불교관에 영향을 준 인물”이 안함(=안홍)이었다고 했고, 김복순(2011)은 명랑의 사천왕사건립은 “이미 안함(안홍)에 의해” 예견되었던 것이었다고 했다.⁹⁾

1) “四天王寺壁畫狗鳴”(『三國遺事』 紀異, 景明王); “太祖卽位稱元”(『三國史記』 景明王 2年).
 2) “四天王寺塑像所執弓弦自絶 壁畫狗子有聲...我太祖移都松岳郡”(『三國史記』 景明王 3年).
 3) “皇龍寺塔影”(『三國遺事』 紀異, 景明王); “康州將軍閔雄 降於太祖”(『三國史記』 4年 2月).
 4) “十月四天王寺五方神”(『三國遺事』 紀異, 景明王); “求援於太祖”(『三國史記』 4年 10月).
 5) 이기동, 1981, 「선덕여왕의 시대: 첨성대 논쟁에 덧붙여서」, 『한국고학사학회지』 3-1, p. 146. 인용문에서 괄호 속의 내용은 필자가 첨가한 것이다.
 6) 고익진, 1986, 『한국밀교사상연구』 불교문화연구소, p. 136.
 7) 신종원, 1992, 「안홍과 신라불국토설」, 『중국철학』 3, pp. 167~189.
 8) “海東名賢安弘撰東都成立記云...若龍宮南皇龍寺建九層塔 則隣國之災可鎮”(『三國遺事』 塔像, 皇龍寺九層塔); “四天王寺之成...建天王寺”(『海東高僧傳』 卷 2, 釋安含).
 9) 채상식, 2001, 「신라사에 있어서 황룡사의 위상과 그 추이」,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22, p. 194; 옥나영, 2007, 「관정경과 7세기 신라 밀교」, 『역사와 현실』 63, p. 258; 장지

신종원(1996)은 첨성대도 안함(=안홍)에 의해 축조가 발원되었다고 했다.¹⁰⁾ 첨성대에 관한 현존 最古기록을 담고 있는 『삼국유사』의 「선덕왕지기삼사」조에서 제 3사의¹¹⁾ “立論은 안홍의 언설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고, 첨성대 축조인연은 제 3사 혹은 안함(=안홍)의 신라불국토설에 있었다고 했다. 다시 말해, 첨성대가 안함(=안홍)이 제 안한 신라불국토설에 의거해 축조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운성·장활식(2009)은 “첨성대 건립에 관여한 승려는 토착신앙 관련 밀교보다 당시 우월하게 평가되었던 수입된 새로운 계통의 밀교와” 관련이 있으며, 밀본¹²⁾ 계통의 밀교승려가 “선덕여왕의 사후 극락왕생에” 깊이 관여하여 첨성대를 세웠다고 했다.¹³⁾ 『삼국유사』에만 나타나는 ‘밀본’이 구법유학을 했다는 기록은 『삼국유사』에 없지만, 밀본의 후예인 명랑과 혜통이 唐에서 神呪를 배워왔다는 점에서¹⁴⁾ 밀본도 역시 구법유학을 다녀왔던 밀교승려로 추정했다.

장활식(2013)은 첨성대 축조와 관련된 ‘수입된 새로운 계통의 밀교’는 실체가 불분명한 ‘밀본’이 아니라 실존인물인 “안함에 의해 隋로부터 수입되었다”고 평가하고, “첨성대의 축조 발원자가 밀교승려 안함이었음은 확실해” 보인다고 견해를 수정했다.¹⁵⁾ 첨성대의 위치와 방향을 분석하여 첨성대가 “황룡사구층탑이 가졌던 신통력의 원천인 용궁을 향하고 있으며, 사천왕사가 수호했던 도리천의 선덕여왕릉과 동지일출선에 맞춰져” 있으므로 “첨성대도 역시 안함의 발상으로 봐야할 것”이라 했다.

이후에 안함(=안홍)의 행적을 분석한 장활식(2015)은 안함(=안홍)이 신라 ‘밀교의 근본’이었다고 평가했다.¹⁶⁾ 이어서 장활식(2016)은 ‘밀본’의 실체가 안함(=안홍)이었다고 주장했다.¹⁷⁾ 신라밀교의 근간이었던 ‘安惠朗融’은¹⁸⁾ 안함(=안홍), 혜통, 명랑 등으로 봐야 옳으며, 동경흥륜사금당십성에서¹⁹⁾ 안함은 ‘밀본’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안함(=안홍)은 신라밀교의 근본이었으며, 신라불국토설을 설

훈, 2001, 「신라 불교의 밀교적 성격」, 『선사와 고대』 16, p. 230; 신용철, 2007, 「초기 신라 불탑관에 대한 고찰」, 『문화사학』 27, p. 457; 김복순, 2011, 「삼국유사 명랑신인조의 구성과 신인중 성립의 문제」,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32, p. 217.

10) 신종원, 1996, 「삼국유사 선덕왕지기삼사조의 몇 가지 문제」,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7, pp. 62~63.

11) “朕死於某年某月日 葬我於勿利天...創四天王寺”(『三國遺事』 紀異, 善德王知幾三事).

12) “時有密本法師以德行聞 於國左右請代之 王詔迎入內”(『三國遺事』 神呪, 密本摧邪).

13) 장운성·장활식, 2009, 「첨성대 회위정 가설」, 『한국고대사연구』 54, pp. 483~486.

14) “入唐學道”(『三國遺事』 神呪, 明朗神印); “還國而黜之”(『三國遺事』 神呪, 惠通降龍).

15) 장활식, 2013, 「경주 첨성대의 방향과 상징성」, 『신라문화』 42, p. 141.

16) 장활식, 2015, 「해동고승전 釋安함전의 분석」, 『신라문화』 46, p. 274.

17) 장활식, 2016,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밀본의 실체」, 『신라문화』 47, pp. 121~134.

18) “乃請 安惠朗融之裔 廣學大緣”(『三國遺事』 神呪, 明朗神印).

19) “東壁坐庚向泥塑 我道厭羈惠宿安含義湘...”(『三國遺事』 興法, 東京興輪寺金堂十聖).

과했으며, 자장의 황룡사구층탑 건립에 영향을 미쳤으며, 명랑의 문두루비법 실행과 사천왕사 건립을 위한 교리를 제공했음이 분명하다.²⁰⁾ 안함(안홍)은 밀교경전인 『관정경』과 합부된 『금광명경』을隋로부터 들여왔다고 판단되는데,²¹⁾ ‘밀본’ 즉 안함(=안홍)은 『관정경』 제 12권으로²²⁾ 선덕여왕의 병환을 치료했고, 자장은 『관정경』 제 6권과 『금광명경』에 근거해 황룡사구층탑을 세웠고, 명랑은 『금광명경』을 근거로 금광사를 세우고, 『관정경』 제 7권의 문두루비법으로 唐軍을 물리치고, 『금광명경』, 『관정경』 등에 기초해 사천왕사를 세웠다고 평가된다.²³⁾ 신라멸망의 징조가 황룡사구층탑과 사천왕사에서 나타났던 이유는 안함(=안홍)이 『금광명경』, 『관정경』 등에 기초하여 설계했던 신라불교도가 몰락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침성대축조가 안함(=안홍)에 의해 발원되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침성대축조 발원자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은 문헌기록에서 발견되지 않는데, 이는 축조발원자의 규명이 추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기존의 추론들이 약간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침성대 축조발원자가 안함(=안홍)이었음을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명확하게 밝히는 데에 목적을 둔다. 제 2절에서 안함(=안홍)의 행적에 대해 살펴보고, 제 3절에서 기존의 연구가 안함(=안홍) 즉 ‘밀본’을 침성대축조 발원자로 지목했던 이유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핵심인 제 4절에서는 침성대 축조발원자가 안함(=안홍)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본 연구에서 ‘침성대’는 경주침성대를 말한다.²⁴⁾ 본 연구는 침성대 축조발원자로 범위를 한정하며,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침성대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최소화한다. 본 연구에서 불필요해 보이는 설명은 침성대연구자들을 위한 것이다.

20) 고익진, 1986, 앞의 책, pp. 127~220; 신종원, 1992, 앞의 논문, pp. 167~189; 장지훈, 2001, 앞의 논문, pp. 215~231; 신용철, 2007, 앞의 논문, pp. 447~465; 김복순, 2011, 앞의 논문, pp. 201~228; 박승훈, 2014, 「해동고승전 안함전 연구」 『한국고대사탐구』 17, pp. 117~145; 장활식, 2015, 앞의 논문, pp. 243~277.

21) 신용철, 2007, 앞의 논문, p. 453 & p. 458.

22) 김연민(2012, 「밀본의 약사경 신앙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65, p. 221)은 『관정경』 제 12권인 『藥師瑠璃光佛本願功德經』이 아니라 大業 12년(615)에隋에서 새롭게 역출한 『佛說藥師如來本願經』이라 했다. 두 경전은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23) 박태화, 1975, 「한국불교의 밀교경전 전래攷」 『한국불교학』 1, p. 49; 조원영, 1999, 「신라 중고기 불교의 밀교적 성격과 약사경」 『역사와 세계』 23, p. 485 & p. 487; 박미선, 2011, 「신라 점찰법회와 밀교」 『동방사학』 155, p. 6 & p. 13

24) 고구려의 평양침성대(『世宗實錄』 卷 154, 地理志, 平壤府), 가야의 진례침성대(『洛下生集』 卷 6, 嶺南樂府), 통일신라의 영일침성대(『佔畢齋集』 卷 2, 迎日縣寅賓堂記), 고려의 개성침성대(『林白湖集』 卷 2, 過松都故宮次韻), 조선의 서울침성대(『肅宗實錄』 卷 15, 10年 12月 10日), 자연구조물인 괴산의 화양동침성대(『鹿門集』 卷 21, 題毅宗皇帝御筆下) 등은 본 연구에서 고찰하지 않는다.

II. 안함(=안홍)의 행적

‘안함’과 ‘안홍’은 동일인물이며,²⁵⁾ 첨성대축조 발원자로 지목된 밀교승려이다. 안함(=안홍)은 진지왕 4년(579) 혹은 진평왕 원년(579)에 진골 김씨로 태어나, 선덕여왕 9년(640)에 萬善도량에서 입적했다.²⁶⁾

진평왕 23년(601)에 23살의 청년이었던 안함(=안홍)은 隋로 구법유학을 떠나, 隋文帝를 직접 알현하고, 隋의 중심사찰인 대홍선사에서 비법과 진문을 학습했다.²⁷⁾ 당시 隋에서는 참언, 참서, 불경 등에 대한 작위적 해석이 광범위하게 행해졌으며, 더불어 事後에 지어낸 거짓예언을 담은 참서들도 유행했다. 참서들은 수문제의 즉위를 정당화하고,²⁸⁾ 중국통일과 불법중흥이 필연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²⁹⁾ 또한 수문제가 사천왕의 명을 받아 三寶를³⁰⁾ 호지하여 九州를 다스리며, 33天이 나눠준 德을 받았고 도리천의 보호를 받는 眞龍성왕이라 주장하기 위함이었다.³¹⁾ 수문제가 제석과 사천왕 등에 의해 수호되는 眞龍성왕이라는 주장은 『금광명경』을 근거로 제기되었다.³²⁾

仁壽 연간(601~604)에 수문제는 각 1개의 불사리를 안치한 110여개의 목탑을 隋의 전역에 건립했다. 인수사리탑의 건립은 천축출신승려인 闍提斯那가 천축의 어느 비문

25) 안함이 안홍이었음은 元曉가 和諍 혹은 無諍이었음, 覺訓이 覺月이었음, 一然이 晦然이었음과 다를 바가 없다(장활식, 2015, 앞의 논문, p. 271).

26) “善德王九年九月二十三日 終于萬善道場 享年六十二”(『海東高僧傳』 卷 2, 釋安含).

27) “詩賦伊殮之孫也...皇情大悅...五稔之中 莫不該覽”(『海東高僧傳』 卷 2, 釋安含).

28) 隋文帝 楊堅(541~604)은 외손자인 北周의 靜帝(573~581)에게서 양위를 받은 후, 9살이었던 靜帝를 살해했다(『資治通鑑』 卷 175, 太建 13年 5月). 이에 대해 隋의 史官이었던 王劼는 ‘白龍與五黑龍鬥 白龍陵’ 예언이 실현된 것이며, 白龍은 양견, 五黑龍은 北周의 五帝(閔帝·明帝·武帝·宣帝·靜帝)를 뜻하므로 靜帝의 죽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운명이었다고 해설하여, 隋文帝의 왕위찬탈을 옹호했다(『隋書』 卷 69, 列傳 34, 王劼).

29) 王劼가 저술한 『隋祖起居注』는 양견이 태어났을 때에 신성한 비구니인 智仙이 나타나 양견이 천하를 얻을 것이며 동쪽으로 와서 불법을 일으킬 것이라 예언했는데, 모두 실현되었다고 했다(『集古今佛道論衡』 卷 乙, 隋兩帝重佛宗法俱受歸戒事).

30) 수문제의 三寶는 불교의 三寶 즉 佛·法·僧을 말하므로(“我皇興復三寶”, 『歷代三寶紀』 卷 12) 新羅의 三寶(황룡사장육, 진평왕옥대, 황룡사구층탑)와 對比되기는 어렵다.

31) 불교에서 인간세계와 천상세계는 수미산으로 연결된다. 수미산 중턱에 제 1天인 사왕천, 정상에 제 2天인 도리천이 있고, 제 3천부터는 허공에 떠있다. 도리천은 수평으로 펼쳐져, 제석이 거주하는 제석천을 중심으로 사방에 각 8天이 있어 33천이라고도 한다. 사왕천과 도리천으로 구성된 地居天의 지배자인 제석은 사천왕 등을 지휘하여 인간세계의 선악을 살핀다. 轉輪聖王은 불법으로 인간세상을 통일해 다스리는 人王이다(정병조, 1994, 「불교의 우주관」 『과학사상』 10, pp. 80~98).

32) “是以『金光明經』正論品云 因集業故得生人中 王領國土 故稱人王 處在胎中諸天守護 或先守護然後入胎 三十三天各以己德分與是王 以天護故稱爲天子”, 『歷代三寶紀』 卷 12).

에서 보았다고 주장한 참언을 따른 것이라 했다.³³⁾ 110여개의 사리탑을 어느 서역승려가 건네준 13개의 불사리로 건립했다는데, 불사리는 아무리 꺼내어도 항상 13개로 변함이 없었다고 한다.³⁴⁾ 대흥선사를 중심으로 전개된 인수사리탑의 건립을 안함(=안홍)이 목격했음은 거의 확실하다.³⁵⁾ 인수사리탑을 세우는 곳마다 꽃비가 내리거나, 神光이 나타나는 등의 신이한 감응이 있었다고 했다.³⁶⁾ 수문제는 인수 원년(601)경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신에게 각 1개의 '불사리'를 나눠줘 각국에 사리탑을 건립토록 했는데, 신라의 불사리는 안함(=안홍)이 가져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³⁷⁾

인수 2년(602) 8월에 60세의 나이로 문헌황후가 죽었다. 탁발선비족의 명문집안 출신으로 엄격한 도덕적 가치관을 가졌던 문헌황후는³⁸⁾ 수문제와 나란히 불법을 받들고 함께 정치를 펼쳐 '二聖'이라 불렸다.³⁹⁾ 死後에 묘선보살로 선언되었고, 광명여래(=아미타불)를 따라 서방정도로 갔다고 한다.⁴⁰⁾ 인수 4년(604) 7월에 64세의 나이로 수문제가 죽었다. 그해 10월에 문헌황후가 문힌 태릉에 합장되었다.⁴¹⁾

안함(=안홍)은 隋의 대흥선사에서 5년 동안 비법과 진문을 학습하고, 진평왕 27년(605) 즉 隋煬帝의 大業 원년(605)에 27세의 나이로 귀국했다. 안함(=안홍)은 隋로부터 귀국하면서 인수불사리, 『능가경』,⁴²⁾ 『승만경』⁴³⁾ 뿐만이 아니라 밀교경전인 『합부금광

33) “於其拆側獲一石碑文云 東方震旦國名大隋 城名大興 王名堅意 建立三寶 起舍利塔”(『續高僧傳』 卷 26, 闍提斯那); “隋文帝西天闍提斯那來上言”(『佛祖統紀』 卷 52, 歷朝譏瑞).
 34) “隋文帝時 一梵僧進舍利十三顆...其十三顆尚在帝掌中”(『禮舍利塔儀式』 卷 1, 釋義, 天冠塔); “有西國僧進舍利一十三顆...十三顆猶在掌中”(『沙彌律儀要略增註』 卷 下, 遶塔).
 35) “自大興善寺來居殿堂 皇帝燒香禮拜”(『廣弘明集』 卷 17, 舍利感應記); 소현숙, 2014, 『隋의 國家大寺 大興善寺』 『중국사연구』 88, pp. 55~56.
 36) ‘사리탑의 감응’은 隋文帝에 의해 강요되었다고 봐야한다(“皇帝曰 今佛法重興必有感應 其後處處表奏”, 『法苑珠林』 卷 40, 舍利感應記).
 37) “仁壽元年...十月...時高麗百濟新羅三國使者將還 各請一舍利於本國起塔供養”(『法苑珠林』 卷 40, 慶舍利感應表; 『釋氏通鑑』 卷 6; 『廣弘明集』 卷 17). 고익진(1989, 『한국고대불교사상사』 동국대학교, p. 393)은 신라로 “사리를 가져온 사람이 바로 안홍”이라 했다.
 38) 『周書』 卷 16, 列傳 6, 獨孤信; 『隋書』 卷 36, 列傳 1, 文獻獨孤皇后.
 39) “往往意合 宮中稱爲二聖”(『隋書』 卷 36, 列傳 1, 文獻獨孤皇后). 박혁거세와 알영이 ‘二聖’으로 불린 것과 같다(“時人謂之二聖”, 『三國史記』 始祖赫居世居西干 5年).
 40) “皆雲是妙善菩薩”(『資治通鑑』 隋紀 3, 高祖文皇帝 仁壽 2年); “光明如雲來迎 向西而去”(『佛祖統紀』 卷 28, 往生女倫傳).
 41) “合葬於太陵”(『隋書』 卷 2, 仁壽 4年 10月). 수문제의 왕생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전륜성왕은 死後에 도리천에서 제석과 나란히 앉는다고 한다(『法苑珠林』 卷 43, 頂生部).
 42) 『능가경』은 밀교사상에 영향을 끼쳤다(윤월, 2007, 『능가경의 선사상』 『한국선학』 16, p. 10). 안함의 종증손인 神行은 『능가경』을 중시하는 北宗禪 승려였다(곽승훈, 2009, 『신라시대 지리산권의 불사활동과 신행선사비의 건립』 『신라문화』 34, p. 211).
 43) 『승만경』은 승만공주 왕위계승의 교리적 근거로 평가된다(“名勝曼”, 『三國史記』 眞德王元年; 조경철, 2009, 『신라의 여왕과 여성성불론』 『역사와 현실』 71, p. 141).

명경』,⁴⁴⁾ 『관정경』⁴⁵⁾ 등도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안함(=안홍)이 귀국한 10여년 후인 진평왕 41년(619)에 중국에서는 隋(581~619)가 멸망하고, 唐(618~907)이 들어섰다.

안함(=안홍)은 진평왕 47년(625)에 천축 삼장법사 3명과 당승 2명을 唐에서 초빙해 황룡사에서 『전단향화성광묘녀경』을 번역케 했다.⁴⁶⁾ 『전단향화성광묘녀경』은 길상천녀 관련 밀교경전으로 추정되며, 번역을 주도했던 비마라진제는 불교의 길상천녀 즉 힌두교의 락슈미에 정통했던 밀교승려로 평가되며, 최치원(857~908+)은 선덕여왕을 “길상천녀의 聖化”⁴⁷⁾라고 했고, 『금광명경』의 공덕천이 길상천녀이다.⁴⁸⁾ 『전단향화성광묘녀경』은 덕만공주를 길상천녀로 신격화해 선덕여왕의 왕위계승을 교리적으로 후원했던 밀교경전으로 판단된다.⁴⁹⁾

안함(=안홍)은 『安含記』, 『安弘記』, 『東都成立記』 등으로 불렸던 참서 1권을 저술했다.⁵⁰⁾ 안함(=안홍)의 참서는 隋에서 유행했던 참서의 풍조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것인데, 적어도 다음의 내용을 포함했다고 추정된다.

첫째, 전불시대부터의 신라역사를 재구성했다. 안함(=안홍)은 『동도성립기』에⁵¹⁾ 전불시대칠처가람설,⁵²⁾ 가섭불황룡사연좌석설,⁵³⁾ 유연국토조성연기설⁵⁴⁾ 등을 제시하여 신라 땅이 전불시대부터 불국토였다고 주창했다.⁵⁵⁾ 안함(=안홍)이 재구성했던 그 이외의 신라역사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⁵⁶⁾

-
- 44) 『합부금광명경』은 “안홍에 의하여 보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신용철, 2007, 앞의 논문, p. 458). 『합부금광명경』은 開皇 17년(597)에 대흥선사에서 합부된 『금광명경』이다.
- 45) 『관정경』도 “안홍에 의해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신용철, 2007, 앞의 논문, p. 453).
- 46) “是年東方聖人安弘法師 與西國三三藏 漢僧二人至自唐...經由五十二國始漢土 遂東來住皇龍寺 譯出施檀香火星光妙女經”(『海東高僧傳』 卷 2, 釋安含).
- 47) “昔我善德女君 宛若吉祥聖化 誕膺東后 景仰西方”(『孤雲集』 卷 1, 善安住院壁記).
- 48) 장활식, 2015, 앞의 논문, pp. 259~262.
- 49) 신종원, 1996, 앞의 논문, p. 60; 장활식, 2015, 앞의 논문, pp. 259~262.
- 50) “作讖書一卷”(『海東高僧傳』 卷 2, 釋安含); “海東安弘記”(『三國遺事』 紀異, 馬韓); “海東名賢安弘撰 東都成立記”(『三國遺事』 塔像, 皇龍寺九層塔); “安含老元董仲三聖記”(『世祖實錄』 卷 7, 3年 5月 26日); “新羅僧安弘記”(『東史綱目』 附錄 上-上, 考異, 九夷).
- 51) 『東都成立記』는 ‘東都의 成立에 관한 記錄’이 아닐 수 없다. ‘東都’는 ‘서역’과 對比된 新羅의 王都를 말한다(장활식, 2015, 앞의 논문, p. 268).
- 52) 前佛時代七處伽藍設은 전불시대의 7개 사찰이 있던 곳(天鏡林·三川岐·龍宮南·龍宮北·沙川尾·神遊林·婿請田)에 신라시대에 7개 사찰(홍륜사·영흥사·황룡사·분황사·영묘사·사천왕사·담업사)이 건립된다는 주장이다(『三國遺事』 興法, 阿道基羅).
- 53) 迦葉佛黃龍寺宴坐石說은 전불시대에 가섭불이 앉아서 강연을 했던 바위가 황룡사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주장이다(『三國遺事』 塔像, 迦葉佛宴坐石).
- 54) 有緣國土造成緣起說은 신라 땅이 전불시대의 불국토였던 인연이 있었기에 인도의 아소카왕 등이 신라의 불국토 건설을 돕는다는 주장이다(『三國遺事』 塔像, 皇龍寺丈六).
- 55) 신종원, 1992, 앞의 논문, p. 184; 장활식, 2016, 앞의 논문, p. 110, 각주 57번.
- 56) 『삼국유사』에서 불교적 요소가 소급 적용되어있는 기록들(“右脇誕生女兒”, 『三國史記』 赫居世居西干 5年)은 일정 부분이 안함(=안홍)에 의해 재구성된 역사일 가능성이 있다.

둘째, 안함(=안홍)은 자신의 생전에 이뤄졌던 일들이 그 이전에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라 주장했다. 전불시대칠처가람설에 따르면 아도가 고구려로 왔을 때에 어머니인 高道寧은 “3,000여월이 지난 후에 서역승려들이 계림으로 도래할 것”을 예언했다.⁵⁷⁾ 아도가 고구려로 왔던 시점이 소수림왕 4년(374)이었으므로⁵⁸⁾ 고도령은 진평왕 47년(625)에 서역승려들에 의한 역경사업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예언은 안함(=안홍)이 事後에 생성하여 고도령에게 가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⁵⁹⁾ 분황사와 영묘사의 건립도 칠처가람설의 예언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안함(=안홍)은 가까운 미래에 펼쳐질 신라 불국토 건설을 예언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황룡사구층탑건립, 선덕여왕의 도리천장례, 사천왕사건립 등에 대한 교시적 예언을 남겼음이 문헌기록을 통해 확인된다.⁶⁰⁾

넷째, 안함(=안홍)은 먼 미래에 대해서도 예언했던 것으로 보인다. 불법에 능한 9인이 신라에 있을 것이라는 예언은⁶¹⁾ 안함(=안홍)에 의해 생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안함기』가 세조 3년(1457)에 금서로 지정된 점을 볼 때,⁶²⁾ 안함(=안홍)의 참서는 조선 왕조에게도 위협이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선덕여왕은 재위 3년(634)에 분황사, 4년(635)에 영묘사를 완성하고, 16년의 재위기간(632~647) 동안에 총 24개에 달하는 불교사찰을 건립했다.⁶³⁾ 적어도 선덕여왕 초기의 사찰건립은 선덕여왕의 왕위계승을 교리적으로 뒷받침한 안함(=안홍)이 주도했을 것이다. 특히 전불시대칠처가람에 포함되는 분황사와 영묘사는 더욱 그렇다고 본다.

명랑은 진골로 추정되며, 선덕여왕 원년(632)에 入唐하여, 4년(635)에 귀국해 금광사를 건립했고, 이후에 신인종의 개조가 되었다.⁶⁴⁾ 명랑의 금광사 건립은 『금광명경』에 의거한 것으로 평가된다.⁶⁵⁾ 명랑은 唐에서 구법유학을 했지만, 隋文帝가 중시했던 『금광명경』을 소의경전으로 삼았다.⁶⁶⁾

『삼국사기』는 선덕여왕이 재위 5년(636)에 큰 병을 앓았을 때에 의약과 기도의 효험이 없어 황룡사에서 『인왕경』 백고좌회를 열었다고 했다.⁶⁷⁾ 한편 『삼국유사』는 선덕여

57) “母高道寧...後三千餘月...大興佛教...當東嚮於釋祀矣”(『三國遺事』 興法, 阿道基羅).

58) “僧阿道來”(『三國史記』 高句麗 小獸林王 4年); “此傳不誤”(『三國遺事』 興法, 阿道基羅).

59) 장활식, 2015, 앞의 논문, pp. 258~259.

60) 『海東高僧傳』 卷 2, 釋安含; 『三國遺事』 塔像, 皇龍寺九層塔.

61) “萬善和上 識中傳 佛法能者有九人”(『高仙寺誓幢和上碑』).

62) 『安舍老元董仲三聖記』...等文書 不宜藏於私處”(『世祖實錄』 卷 7, 3年 5月 26日).

63) 이인철, 1999, 『분황사 창건의 사회·경제적 기반』, 『신라문화』 20, p. 3.

64) “善德王元年入唐 貞觀九年乙未來歸”(『三國遺事』 神呪, 明朗神印).

65) 문명대, 1976, 『신라 신인종 연구』 『진단학보』 41, p. 191; 고익진, 1986, 앞의 책, p. 152; 신용철, 2007, 앞의 논문, p. 457.

66) 문명대(1976, 위의 논문, p. 207)는 신인종의 소의경전이 『관정경』, 『금광명경』, 『관불삼매해경』 등이었다고 했다.

67) “王疾 醫禱無效 於皇龍寺設百高座 集僧講仁王經”(『三國史記』 善德王 5年).

왕의 병환을 밀본이 『약사경』으로 치료했다고 했다.⁶⁸⁾ 『약사경』은 안함(=안홍)이隋에서 가져왔을 『관정경』의 제 12권인 『灌頂拔除過罪生死得度經』 즉 『藥師瑠璃光佛本願功德經』을 말한다.⁶⁹⁾ 당시에는 승려들이 치병활동에 관여했다.⁷⁰⁾

자장은 진골 김씨로 명랑의 외숙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명랑보다도 늦은 선덕여왕 5년(636)⁷¹⁾ 혹은 7년(638)에⁷²⁾ 入唐했다.⁷³⁾ 선덕여왕 7년(638)에 명랑은 대략 29세 전후,⁷⁴⁾ 자장은 적어도 50세 전후로⁷⁵⁾ 추정되며, 당시에 안함(=안홍)은 60세였다. 자장이 50세 이상의 나이에⁷⁶⁾ 통상적 구법유학을 떠났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10여명의 승려들을 거느리고 갔기⁷⁷⁾ 때문에 더욱 그렇다. 자장의 入唐은 안함(=안홍)의 入唐처럼 특별한 목적을 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선덕여왕 9년(640)에 안함(=안홍)이 62세의 나이로 만선사에서 입적했다. 안함(=안홍)은 구름을 타고 바다를 건너 서방세계로 갔다고 한다.⁷⁸⁾ 안함(=안홍)은 “삼국통일을 가능케 했던 종교적 기반을”⁷⁹⁾ 구축했다고 평가되었으며, 東方聖人, 弘法之聖人, 海東名賢, 新羅十聖 중의 1명으로 평가되었다.⁸⁰⁾

선덕여왕 7년(638)에 자장이 入唐하고, 9년(640)에 안함(=안홍)이 입적한 후, 신라는 거의 불가항력적인 대외 위기에 처하게 된다.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은 진평왕대부터

68) “本在宸仗外讀 藥師經王疾乃瘳”(『三國遺事』 神呪, 密本摧邪).

69) “聞我說是藥師瑠璃光佛本願功德”(『佛說灌頂經』 卷 12, 佛說灌頂拔除過罪生死得度經).

70) 옥나영, 2007, 앞의 논문, p. 260.

71) “慈藏法師入唐求法”(『三國史記』 善德王 5年); 『三國遺事』 塔像, 臺山五萬眞身.

72) “大王卽位七年 大唐貞觀十二年 我國仁平五年 戊戌歲”(『皇龍寺九層木塔利柱本記』).

73) 이에 따라 명랑이 자장보다 나이가 많았거나(김재경, 1978, 『신라의 밀교 수용과 그 성격』 『대구사학』 14, p. 14), 비슷했다고 보기도 하지만(장지훈, 1999, 『자장과 분황사』 『신라문화』 20, p. 57), 자장의 누이동생이 명랑을 낳았다는 기록(“母曰南潤夫人...則慈藏之妹也”, 『三國遺事』 神呪, 明朗神印)과 배치된다. 이에 명랑이 문무왕 10년(671)경에 귀국했다고 보기도 하지만(신종원, 1996, 앞의 논문, p. 56), 당시에 명랑은 이미 신인종의 대표적인 高僧이었다(“明朗爲上首”, 『三國遺事』 紀異, 文武王法敍).

74) 진골로 추정되는 명랑이 선덕여왕 원년(632)에 안함(=안홍)과 같은 나이인 23세로 구법유학을 떠났다고 가정한다면, 선덕여왕 7년(638)에 명랑의 나이는 29세였다.

75) 자장의 누이동생이 셋째 아들인 명랑을 20세에 낳았다고 더불어 가정한다면, 선덕여왕 7년(638)에 자장의 나이는 적어도 50세였다. 자장의 생몰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김복순, 2007, 『자장의 생애와 율사로서의 위상』 『대각사상』 10, pp. 9~44).

76) 자장은 선덕여왕대(623~647)에 國統으로 황룡사에 主席했다(“善德王代 寺初主眞骨歡喜師 第二主 慈藏國統”, 『三國遺事』 塔像, 皇龍寺丈六). 선덕여왕대 후반에 자장은 중년을 넘은 나이였다고 판단된다.

77) “以貞觀十二年 將領門人僧實等十有餘人”(『續高僧傳』 卷 24, 新羅國大僧統釋慈藏傳).

78) “敷座于碧浪之上怡然向西而去...端坐水上 指西而去”(『海東高僧傳』 卷 2, 釋安含).

79) 장활식, 2016, 앞의 논문, p. 31.

80) “東方聖人安弘法師...眞弘法之聖人”(『海東高僧傳』 卷 2, 釋安含); “海東名賢安弘”(『三國遺事』 塔像, 皇龍寺九層塔); 『三國遺事』 興法, 東京興輪寺金堂十聖.

있어왔지만, 선덕여왕 10년(641)에 백제에서 의자왕이 즉위하고, 선덕여왕 11년(641)에 연개소문이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사태는 극도로 심각해졌다.⁸¹⁾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선덕여왕은 唐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외교적으로는 김춘추, 군사적으로는 김유신에 기댔고, 종교적으로는 황룡사구층탑을 세워 신라불국토를 수호하려 했다.⁸²⁾

자장은 선덕여왕 12년(643)에 귀국해, 14년(645) 3월에 황룡사구층탑 건립을 시작하여 4월에 চাল주를 세우고,⁸³⁾ 이듬해(646)에 완성했다.⁸⁴⁾ 황룡사구층탑은 자장이 확보해 온 조탑 기술로 완성되었다고 본다.⁸⁵⁾ 황룡사구층탑은 『관정경』의 제 6권인 『佛說灌頂塚墓因緣四方神呪經』 등에 의거해 건립되었다고 평가된다.⁸⁶⁾ 자장의 불교사상은 『삼국유사』에서 문수신앙과 불가분의 관계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隋文帝의 『금광명경』에 입각한 도리천사상, 진평왕의 제석사상, 안함(=안홍)의 신라불국토사상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삼국유사』는 자장이 唐의 오대산에서 도리천의 제석이 만든 문수보살상으로부터 梵偈를 받았다고 했다.⁸⁷⁾ 그러나 민영규(1993)에 따르면 자장은 문수보살이 아닌 도리천에서 내려온 천사로부터 범계를 받았음이 분명하다.⁸⁸⁾

선덕여왕이 재위 16년(647)에 세상을 떠났다. 생전에 선덕여왕은 도리천에 묻히기를 원했고, 낭산을 도리천이라 했는데, 선덕여왕의 장례는 낭산에서 거행되었다.⁸⁹⁾ 선덕여왕의 업적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⁹⁰⁾

안함(=안홍)이 隋에서 가져온 『능가경』과 『승만경』은 신라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묘법법화경』은 여성의 몸으로는 범천, 제석, 마왕, 전륜성왕, 부처가

81) “百濟來攻”(『三國史記』 眞平王 24年 8月); “高句麗侵”(眞平王 25年 8月); “雄勇有膽決”(百濟 義慈王 元年); “蓋蘇文弑王”(高句麗 榮留王 25年 10月).

82) “遣使大唐上言”(『三國史記』 善德王 12年); “春秋恨之欲請高句麗兵”(『三國史記』 卷 41, 列傳 1, 金庾信); “命庾信拒之遂不至家”(『三國史記』 善德王 14年 3月).

83) চাল주를 세우기에 앞서 불사리를 봉안했다(“有金銀高座 於其上安舍利琉璃瓶”, 『皇龍寺九層木塔刹柱本記』). 『삼국유사』는 안함(=안홍)이 아닌 자장이 가져온 불사리를 매납했다고 했다(“慈藏法師...佛舍利百粒...一分在皇龍塔”, 『三國遺事』 塔像, 前後所藏舍利).

84) “高僧慈藏還”(『三國史記』 善德王 12年 3月); “創造皇龍寺塔”(『三國史記』 善德王 14年 3月); “其十四年歲次乙巳 始構建四月 立刹柱 明年乃畢功”(『皇龍寺九層木塔刹柱本記』).

85) 장활식(2013, 앞의 논문, p. 120, 각주 72번)은 “백제인 阿非知는 唐에서 造塔專門家로 일하다가 唐朝廷의 명령으로 자장과 함께 신라로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86) 옥나영, 2007, 앞의 논문, p. 257. 한편 신용철(2007, 앞의 논문, p. 452)은 『관정경』의 제 6권과 『합부금광명경』에 입각해 황룡사구층탑을 건립했다고 보았다.

87) “帝釋天將工來彫也 藏於像前禱祈冥感 夢像摩頂授梵偈”(『三國遺事』 義解, 慈藏定律).

88) “又告藏曰 吾從忉利天來 故授汝戒 因騰空滅”(『續高僧傳』 卷 24, 新羅國大僧統釋慈藏傳); 민영규, 1993, 『신라 불교의 정립과 삼계교』 『동방학지』 77, p. 8.

89) “葬我於忉利天中...狼山南也”(『三國遺事』 紀異, 善德王知幾三事); “諡曰善德 葬于狼山”(『三國史記』 善德王 16年 1月 8日).

90) 김선주, 2009, 『선덕여왕의 즉위 배경과 통치적 특징』 『페미니즘 연구』 9-2, p. 317; 주보돈, 2010, 『한국 고대사회 속 여성의 지위』 『계명사학』 21, p. 53.

될 수 없다고 했다.⁹¹⁾ 그러나 『능가경』은 모든 인간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소양을 가졌다고 했고,⁹²⁾ 『승만경』은 여자의 몸으로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다.⁹³⁾ 『승만경』이 승만공주의 왕위계승을 위한 교리적 근거였다면, 안함(=안흥)은 진덕여왕의 즉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진덕여왕대(647~654)를 지나, 태종무열왕 7년(660)에 신라는 唐과 연합하여 백제를 정복했고, 문무왕 8년(668)에는 고구려를 정복했다. 이어서 영토분할 문제로 나당전쟁(670~676)이 발발했다. 신라는 문무왕 10년(670)에 고구려의 군사들과 함께 말갈족 및 唐軍에 맞섰고, 배후의 위협이 되는 백제지역의 반대세력을 토벌했다.⁹⁴⁾

문무왕 10년(670)경에 명랑은 낭산의 남쪽 기슭에서 문두루비법을 행하여 서해를 건너오는 唐軍을 물리쳤다고 한다.⁹⁵⁾ 문두루비법은 『관정경』 제 7권인 『佛說灌頂伏魔封印大神呪經』의 비법이다.⁹⁶⁾ 명랑이 문두루비법을 행한 곳에 문무왕 19년(679)에 사천왕사가 완성되었다.⁹⁷⁾ 사천왕사는 『금광명경』의 사천왕품에 입각해 건립된 호국사찰이며, 문두루비법의 『관정경』과도 무관할 수 없다.⁹⁸⁾

안함(=안흥)은 신라밀교의 근본이었다. 신라밀교는 ‘밀본’ 즉 안함(=안흥)에서 시작해 명랑과 혜통으로 이어졌는데,⁹⁹⁾ 고려밀교는 국가적 위난을 밀단법으로¹⁰⁰⁾ 타계하는 명랑계열의 신인종과 개인적 재액을 진언과 다라니로¹⁰¹⁾ 소멸하는 혜통계열의 총지종으로 나뉜다.¹⁰²⁾ 안함(=안흥)은 우리나라 밀교의 근본이었다.¹⁰³⁾

91) “又女人身猶有五障”(『妙法蓮華經』卷 4, 提婆達多品).

92) 윤월, 2007, 앞의 논문, p. 18.

93) “當得作佛”(『勝鬘師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卷 1).

94) “靺鞨兵...唐兵繼至 我兵退保白城...擧兵討百濟”(『三國史記』文武王 10年).

95) “草搆五方神像...作文豆婁秘密之法”(『三國遺事』紀異, 文武王法敏).

96) “名爲文頭婁法”(『佛說灌頂經』卷 7, 『佛說灌頂伏魔封印大神呪經.]); “神印大德明朗假設密壇法禳之”(『三國遺事』義解, 義湘傳教); 옥나영, 2007, 앞의 논문, p. 63.

97) “四天王寺成”(『三國史記』文武王 19年 8月).

98) 김상현, 1996, 「사천왕사의 창건과 의의」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17, p. 137.

99) “先是密奉之後 有高僧明朗”(『三國遺事』神呪, 惠通降龍).

100) 밀단법이란 경전에 의거해 단을 쌓고, 본존을 안치한 후, 진언을 외어 기원하는 바를 달성케 하는 밀교의 비법이다(“明朗假設密壇法”, 『三國遺事』義解, 義湘傳教).

101) 神呪는 眞言과 摠持(=다라니)로 구분된다. 진언은 천축에서 유래되어 뜻을 알기 어려운 짧은 주문이며, 다라니는 불교에서 형성되어 뜻을 알 수 있는 긴 주문이다.

102) 변동명, 2004, 「충숙왕의 密敎大藏 金字寫經」 『역사학보』 184, p. 55. 물론 密壇과 神呪를 상호배타적이라 할 수 없다(조원영, 2001, 「신라 중대 신인종의 성립과 그 미술」 『역사와 경계』 40-41, p. 18; 정병삼, 2011, 「삼국유사 신주편과 감통편의 이해」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32, p. 13).

103) 오방낭은 『관정경』 제 12권의 비법이다(“五色雜綵作囊”, 『佛說灌頂經』卷 12, 『佛說灌頂拔除過罪生死得度經.]). 문두루비법과 마찬가지로 오방신의 위력을 가진다고 한다.

III. 축조발원자에 대한 기존의 가설

침성대에 관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유사』 기이편의 「선덕왕지기삼사」조에 있다. 일연(1206~1289)의 『삼국유사』(1284±)는 역사기록,¹⁰⁴⁾ 문학작품¹⁰⁵⁾ 등으로 평가되는데,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 동시에 일연의 의도가 서술에 짙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덕왕지기삼사」조도 예외가 아니다.

[가-1] 첫째, 당태종이 홍색·자색·백색 세 가지 색의 목단화 그림과 꽃씨를 보내 왔다. 왕이 꽃그림을 보더니 “꽃향기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왕의 말과 다름이 없었다. 둘째, 영묘사 옥문지에 겨울임에도 개구리들이 모여 울어댔다. 왕이 적병의 침입을 알아채어, 여근곡에서 백제 군사들을 물리치게 했다. 셋째, 왕이 아무 병도 없을 때에 신하들에게 “나는 아무 해, 아무 월, 아무 날에 죽을 것이니 도리천 가운데에 장사지내도록 하라”고 했다. 신하들이 도리천이 어디지를 몰라 하니, 왕이 “낭산 南이다”라 했다. 과연 그 달 그 날에 이르러 왕이 죽었고, 신하들은 낭산의 양지에 장사지냈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난 뒤에¹⁰⁶⁾ 문무대왕이 왕의 무덤 아래에 사천왕사를 지었다. 불경에 말하기를 “사천왕천 위에 도리천이 있다”고 했으니 이에 대왕의 靈聖을 알게 되었다.

[가-2] 세 가지 색의 꽃을 보낸 것은 아마도 신라에 세 여왕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음인가? 세 여왕은 선덕, 진덕, 진성이니 당황제도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이다. 선덕이 영묘사를 창건한 것은 「良志師傳」에 자세히 적혀있다. 『별기』에 따르면 이 왕대에 돌을 다듬어 침성대를 쌓았다.¹⁰⁷⁾

[가-1]은 3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있다. 그 중에서 제 3사는 선덕여왕이 무탈할 때에 자신의 죽을 날을 예언했고, 도리천(=낭산)에 묻어달라고 했고, 선덕여왕릉(=도리천) 아래에 사천왕사가 세워질 것임을 예지했다는 내용이다. 더 요약하면, 죽을 날, 도리천장례, 사천왕사건립에 관한 예언이다. 핵심은 선덕여왕이 죽은 뒤에 사왕천 위의 도리천에 묻혔다는 것이다.

신종원(1996)은 침성대축조 발원자로 안함(=안홍)을 지목했다. 「선덕왕지기삼사」조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논지를 펼쳤다.¹⁰⁸⁾

104) 이기백, 1973,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의의」 『진단학보』 36, pp. 162~165.
 105) 이동근, 2000, 「삼국유사의 한문학사적 위상」 『우리말글』 20, pp. 321~353.
 106) 선덕여왕은 재위 16년(647)에 세상을 떠났고, 사천왕사는 문무왕 19년(679)에 완성되었다. ‘10여년’은 안함(=안홍)이 예언한 사천왕사 완성시점으로 볼 수 있다.
 107) “『別記』云 是王代鍊石築瞻星臺”(『三國遺事』 紀異, 善德王知幾三事).
 108) 신종원, 1996, 앞의 논문, pp. 54~64.

첫째, [가-1]의 제 3사에서 도리천장례와 사천왕사건립은 안함(=안흥)에 의해 예언되었음을 지적했다. 고려고종 2년(1215)에 영통사 주지였던 각훈이 왕명을 받들어 편찬한 『해동고승전』 『釋안함전』의 다음 기록을 제시했다.¹⁰⁹⁾

[나-1] 안함이 저술한 참서는 첫 번째 여왕을 도리천에 장례지내는 일, 천리에 펼쳐진 군사가 패배하는 일, 사천왕사가 완성되는 일, 왕자가 고국에 돌아오는 해, 대군이 밝은 날을 이루는 해 등을 예언했다.

[나-2] 한림 설모가 왕명을 받들어 비문을 지었다. 비문에는 “황후를 도리천에 장례지내는 일, 사천왕사를 건립하는 일, 괴조가 밤에 울고 군사들이 모두 아침에 죽는 일” 등이 적혀 있었다(『해동고승전』 권 2, 釋안함).

[나-1]과 [나-2]에서 각훈은 도리천장례와 사천왕사건립에 대한 예언을 안함의 참서에서 직접 보았고, 안함의 비문에서도 직접 보았다고 했다. 참서는 활자가 흩어져 있었고 뜻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지만, 각훈은 “第一女主葬切利天...四天王寺之成”으로 판단되는 예언을 읽어냈다고 했다. 또한 비문도 일부가 결락된 상태였지만,¹¹⁰⁾ “后葬切利建天王寺”로 판단되는 예언을 읽었다고 했다. 각훈의 판독에 심각한 오류가 없었다면, 도리천장례와 사천왕사건립은 안함의 예언이었음이 거의 확실하다.

둘째, 제 3사에서 선덕여왕이 자신의 죽을 날을 “예언했다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고, 중요한 기록이 아니라 간주했다.¹¹¹⁾ 신종원(1996)은 일연이 각훈의 [나-1], [나-2] 등에 기초하여 [가-1]의 제 3사를 서술했지만, 죽을 날에 대한 예언은 창작했다고 본 듯하다. 안함(=안흥)의 예언은 제 3사와 동일한 것이며, 제 3사의 “立論은 안흥의 言說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셋째, [가-2]의 첨성대에 대해서는 “과학적 차원이든, 점성적 차원이든 간에 하늘에 대한 관심이 새로이 표명된 곳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첨성대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과학적, 종교적, 정치적 관점의 해석이 있고, 이들을 결합한 복합기능설도 많지만, 그 어떤 해석이라 할지라도 첨성대를 하늘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기 어려우며, 또한 그렇게 주장한 연구도 없다. 무엇보다도 ‘瞻星臺’의 ‘星’이 좁게는 ‘하늘의 별’, 넓게는 ‘하늘’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¹¹²⁾

109) “第一女主 葬切利天...四天王寺之成...后葬切利建天王寺”(『海東高僧傳』卷 2, 釋安함).

110) 각훈은 비문의 64字 중에서 일부 缺損된 10字와 완전 喪失된 4~5字를 자신이 보충해 넣어 문장을 만들었다고 했다(“碑文苔蝕字缺十喪四五”, 『海東高僧傳』卷 2, 釋安함).

111) 강재철(1991, 「선덕여왕지기삼사조 설화의 연구」 『동양학』 21, p. 30)도 죽을 날에 대한 예언을 “문학적으로 잘 형상화한” 허구라고 했다.

112) 이문규, 2004, 「첨성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과학사학회지』 26-1, p. 17; 장활식, 2013, 앞의 논문, p. 142. ‘瞻’은 ‘우러러보다’, ‘쳐다보다’ 등의 의미를 가진다.

넷째, 제 3사의 도리천이 첨성대의 하늘이라 했다. 첨성대가 선덕여왕 때에 축조된 배경이 진평왕의 제석신앙, 『관정경』 등의 밀교적 호국사상, 신라의 三寶, 진평왕대에 표명된 聖骨관념, 선덕여왕의 존호인 ‘聖祖皇姑’ 등이므로 선덕여왕대의 밀교, 선덕여왕의 신성함 등이 첨성대와 무관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첨성대를 통하여 하늘에 제사지냈거나 천계왕래를 했다는 ‘天’은 바로 도리천”이라 했다.

다섯째, 선덕여왕의 도리천장례, 도리천 아래의 사천왕사건립, 도리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첨성대축조는 모두가 안함(=안흥)의 신라불국토설을 따른 것이라 했다. [가-2]의 『별기』에는 “축조 인연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세 번째 이야기나 안흥의 신라불국토설과 동계의 불교우주관적 동기를¹¹³⁾ 내세웠을 것”으로 보았다.

장윤성·장활식(2009)은 『선덕왕지기삼사』조를 분석하여 첨성대축조 발원자가 밀본일 것이라 추정했다. 다음과 같이 논지를 펼쳤다.¹¹⁴⁾

첫째, [가-1]의 도리천장례와 사천왕사건립은 반드시 [가-2]의 첨성대와 직결되었으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했다. [가-1]의 제 1사는 세 가지 색의 목단화에 대한 내용인데, 이에 대한 부연설명이 [가-2]의 세 가지 색의 꽃에 관한 서술이라 했다. [가-1]의 제 2사는 영묘사 옥문지에서 개구리들이 우는 것을 보고는 적군의 침입을 알았다는 내용인데, 이에 대한 부연설명이 [가-2]의 영묘사에 관한 서술이라 했다. [가-1]의 제 3사는 죽을 시점, 도리천장례, 사천왕사건립에 관한 예언인데, 이에 대한 부연설명이 [가-2]의 첨성대에 관한 서술이라 했다. 『선덕왕지기삼사』조의 문단구조분석에 따르면, 제 3사의 도리천은 첨성대의 하늘인 것으로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했다.

이 논점은 장활식(2012)에 의해 재검토되었다.¹¹⁵⁾ 장활식(2012)은 [나-2]의 첨성대에 관한 서술은 다양하게 해석되었지만, 제 3사에 대한 부연설명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가-2]에서 제 1사에 대한 부연설명과 제 2사에 대한 부연설명은 제 3사에 대한 부연설명인 첨성대 기록을 삽입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가-1]의 제 3사와 [가-2]의 첨성대기록 간에 연관성이 숨겨져 있다고 했다.¹¹⁶⁾

둘째, 선덕여왕이 무탈했을 때에 죽을 날을 예언했다는 제 3사의 서술은 첨성대가 선덕여왕 죽음과 때를 맞춰 완성되었기 때문에 생성되었을 것이며, “선덕여왕은 생전에 자신의 죽음에 대비하여 미리 왕릉의 위치를 결정했을” 것이므로 “첨성대 건립도 자신의 죽음에 대비하여 생전에 착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신종원(1996)과는 달리 죽을 날에 대한 예언도 첨성대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113) ‘同軌의 불교우주관적 동기’란 ‘신라불국토설과 맥락을 같이하는 불교의 우주관에서 말하는 사왕천 위의 도리천 등을 신라에서 실현하고자하는 의지’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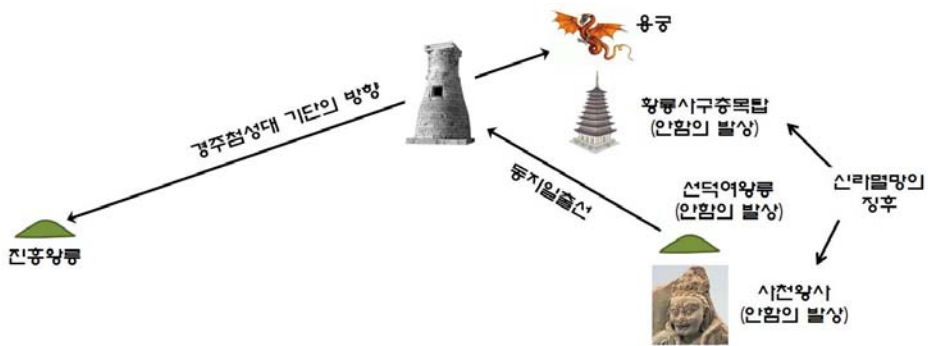
114) 장윤성·장활식, 2009, 앞의 논문, pp. 466~471 & pp. 483~486.

115) 장활식, 2012, 『첨성대 옛 기록의 분석』 『신라문화』 39, pp. 109~117.

116) 이런 견해를 따르면, 『삼국유사』에는 ‘일연의 코드’가 존재한다. 암호학에서 코드(code)란 특정한 수신자만이 해독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변환하는 방법을 말한다.

셋째, “선덕여왕대 불교의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밀교승려의 존재”이며, “밀교승려들이 선덕여왕의 개인적 신병에 깊이” 관여했는데, 선덕여왕의 병환을 치료했던 밀본과 같은 밀교승려들이 “선덕여왕의 사후 극락왕생에도 깊이 관여”하여 도리천상생을 위한 첨성대를 쌓았다고 추정했다. “밀본, 명랑, 혜통은 동일계열의 밀교승려”이며, “명랑과 혜통은 唐에서 神呪”를 배워왔는데, 밀본이 토착신앙관련 밀교승려들을 제압했다는¹¹⁷⁾ 점에서 “첨성대 건립에 관여한 승려는 토착신앙 관련 밀교보다 당시 우월하게 평가되었던 수입된 새로운 계통의 밀교”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이후에 장활식(2013)은 ‘새로운 계통의 밀교’는 실체가 불분명한 ‘밀본’이 아니라 안함(=안홍)에 의해 수입되었다고 견해를 수정했다. 첨성대의 위치와 방향은 안함(=안홍)의 신라불국토설에 의해 정교하게 결정되었다고 했다.¹¹⁸⁾



<그림 1> 첨성대의 위치, 방향, 관련 유적

첫째, <그림 1>에서¹¹⁹⁾ 선덕여왕릉과 첨성대가 이루는 각도가 경주지역의 동지일출선과 정확하게 일치하며, 동지일출은 천문학적 현상이지만 고대에서는 종교적 의미를 가졌다고 했다. 동지새벽에 선덕여왕릉을 지난 아침햇살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첨성대 위로” 쏟아지는 이유는 첨성대가 “도리천 상생통로였기” 때문이라 해석했다.¹²⁰⁾ 이런 배치는 도리천장례를 예언한 안함(=안홍)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보았다.

117) “本在宸仗外讀藥師經...刺一老狐與法惕倒擲庭下 王疾乃瘳”(『三國遺事』 神呪, 密本摧邪).

118) 장활식, 2013, 앞의 논문, pp. 122~148.

119) 장활식, 2013, 앞의 논문, p. 140, 그림 10. 선덕여왕릉과 첨성대 간의 각도는 동남동 약 29.5도이며, 경주지역의 동지일출각도는 약 29.45도이다.

120) 현재 첨성대 창문방향은 정남에서 시계반대방향으로 약 16도 회전해있다(유복모·강인준·양인태, 1981, 『경주 첨성대의 위치해석에 대한 고찰』 『한국고학사학회지』 3-1, p. 83). 그러나 원형에서는(장활식, 2012, 『경주첨성대의 파손과 잘못된 복구』 『문화재』 45-2, pp. 72~99) 창문의 방향이 선덕여왕릉을 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둘째, 선덕여왕릉에서 당시의 기준으로 정확한 남쪽에 사천왕사가 배치되었다고 했다. 선덕여왕릉의 중심과 사천왕사의 중심이 이루는 각도는 정남에서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한 약 3도이지만, 황룡사지, 분황사지, 망덕사지, 사천왕사지, 월지와 동궁지, 전인용사지, 신라왕궁 등도 모두가 정남에서 시계반대방향으로 약 3도 회전해 있으므로 당시의 기준으로는 '정남'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배치는 도리천장례와 사천왕사건립을 계획했던 안함(=안홍)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보았다.

셋째, 첨성대기단은 시계반대방향으로 약 19도가 틀어진 동서방향을 향하는데, 첨성대기단의 東面이 용궁을 바라본다고 했다. 황룡사와 분황사 사이에 있었던 신라의 용궁은¹²¹⁾ 황룡사구층탑이 가졌던 위력의 원천이었던 호법용이 살던 곳이며, 밀교의 비법이 保藏되었던 곳이라 평가했다. 東面이 용궁을 바라본 이유는 용궁에 보관된 밀교의 비법들을 모아 첨성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이라 했다. 唐高宗 李治(628~683)는 어렸을 때에 여원 어머니 文德皇后(601~636)의 도리천왕생을 위한 자은사를 건립하면서, “용궁에 있는 梵文의 偈는 반드시 淸臺에 모여서 피어날 것”이라 했다.¹²²⁾ 신라의 용궁과 첨성대 간의 관계는 唐의 용궁과 淸臺 간의 관계와 같았다고 평가했다. 호법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승려가 자장이었고, 梵偈를 받았던 승려도 자장이었지만,¹²³⁾ 황룡사구층탑의 건립은 안함(=안홍)에 의해 최초로 발원되었다고 했다. 용궁을 향하는 첨성대의 방향도 신라불국토설을 제안한 안함(=안홍)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보았다.

넷째, 첨성대기단의 西面은 추사 김정희(1786~1856) 등에 의해 진흥왕릉으로 평가된 고분을 향한다고 했다. 첨성대가 진흥왕릉으로 추정되는 고분을 향하는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삼국사기』의 진흥왕 37년(576) 기록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다-1] 안홍법사가 入隋에 들어가 불법을 배우고, 胡僧 毗摩羅 등 두 승려와 함께 돌아와 『능가경』, 『승만경』, 불사리를 바쳤다. 가을 8월에 왕이 죽었다. 시호를 眞興이라 했다(『삼국사기』 진흥왕 37년)

인종 14년(1136)에 밀교승려 묘청의 반란을 진압했던 김부식(1075~1151)이 고려밀교의 근본이기도 했던 안함(=안홍)에 대한 기록을 이처럼 진흥왕의 죽음 직전에 의도적으로 배치했던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첨성대기단의 西面이 추정 진흥왕릉을 향하는 이유는 [다-1]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림 1>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첨성대의 축조 발원자가 밀교승려 안함이었음은 확실해 보인다고 했다.

121) “龍宮南今黃龍寺...龍宮北今芬皇寺”(『三國遺事』 興法, 阿道基羅).
 122) “龍宮梵說之偈必萃淸臺 猊吼貝葉之文咸歸冊府”(『大慈恩寺三藏法師傳』 卷 7).
 123) “皇龍寺護法龍是吾長子”(『三國遺事』 塔像, 皇龍寺九層塔); “彼國相傳云 帝釋天將工來彫也 藏於像前禱祈冥感 夢像摩頂授梵偈”(『三國遺事』 義解, 慈藏定律).

IV. 첨성대 축조발원자 안함(=안홍)

첨성대 축조발원자에 대한 견해들은 서로 접근방법이 판이하게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안함(=안홍)이라는 하나의 결론에 닿았다. 물론 추론과정에서 상호 대립하는 미세한 부분이 없지 않고, 연구결과에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본 연구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異論의 여지를 없애고자 한다.

첫째, [다-1]에서 하나의 예를 볼 수 있듯이, 윤색, 조작, 가필 등이 존재하는 안함(=안홍) 관련기록을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 오래된 문제는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삼국유사』가 안함(=안홍)을 숨겨서 서술했음에 초점을 둔다.

『삼국유사』에서 ‘일연의 코드’로 숨겨진 안함(=안홍)에 대한 서술은 저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 하나의 예로 [가-1]의 제 3사와 [가-2]의 첨성대기록 간에 존재하는 ‘일연의 코드’는 이미 살펴보았다. 다음은 다른 예이다.

[라-1] 동쪽 벽에 앉아 庚方을 향한 소상은 아도, 염축, 혜숙, 안함, 의상이고, 서쪽 벽에 앉아 甲方을 향한 소상은 표훈, 사파, 원효, 혜공, 자장이다(『삼국유사』 흥법, 동경흥륜사금당십성).

[라-1]은 선발기준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흥륜사금당십성이다. 十聖 중에서 안함만을 제외한 9명이 『삼국유사』에 입전되어있다. 이에 대해 신종원(1992)은 “기이한 느낌이다” 든다고 했고, 곽승훈(2014)은 “유독 안함을 빠트린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¹²⁴⁾ 이런 혼란은 ‘일연의 코드’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한편 장활식(2016)은 “안함이 ‘밀본’으로 적혀있을 뿐, 모두 『삼국유사』에 입전되어 있다”¹²⁵⁾고 했다.

[라-2] 절의 기록은 “선덕왕대 황룡사의 初主는 진골인 환희사, 第二主는 자장국사였으며, 그 다음이 국통 혜훈, 그 다음이 상률사”였다고 했다(『삼국유사』 탑상, 황룡사장육).¹²⁶⁾

[라-2]의 환희사에 대해 하도겸(2015)은 “혹시 뭔가를 숨기고 있는 별명 같은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했다.¹²⁷⁾ 그는 환희사의 실체를 찾는 과정에서 자장보다 뛰어났던 환

124) 신종원, 1992, 앞의 논문, p. 181; 곽승훈, 2014, 앞의 논문, p. 134, 각주 48번.

125) 장활식, 2016, 앞의 논문, p. 129.

126) “善德王代 寺初主眞骨歡喜師 第二主慈藏國統”(『三國遺事』 塔像, 皇龍寺丈六).

127) 하도겸, 2015, 『삼국유사 탑상 황룡사장육조의 초주 환희사와 원효』 『한국사학사학보』 31, p. 113.

회사는 [라-1]의 흥륜사금당십성에 반드시 포함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의 주장대로 선덕여왕대(632~647)에 자장에 앞서 황룡사에 主席했던 진골신분인 환회사가 원효(617~686)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¹²⁸⁾ 흥륜사금당십성에서 자장보다 앞서 있으며, 황룡사를 거점으로 활동했던 진골신분의 승려를 찾아야할 것이다. '환회사'는¹²⁹⁾ 황룡사에게 역경사업을 펼쳤고, 선덕여왕의 왕위계승을 뒷받침했던 김씨 진골 태생의 동방성인 안함(=안홍)으로 판단된다.

[라-3] 처음 찰주를 세우는 날에 아버지는 백제가 멸망하는 모습을 꿈꾸었다. 의심이 나서 손을 놓았는데, 갑자기 대지가 진동하면서 어둠 속에서 어떤 노승과 장사가 金殿門에서 나타나 찰주를 세우고 사라졌다. 아버지는 마음을 고쳐먹고 탑을 완성하였다(『삼국유사』 탑상, 황룡사구층탑).

황룡사구층탑 건립현장에 壯士를 데리고 나타나 찰주를 세우게 했던 노승은 누구일까? '金殿'은 여럿이 있지만,¹³⁰⁾ 하늘이 열린 게 아니라 대지가 흔들렸으므로 지상의 황룡사 금당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신묘한 능력의 '老僧'은 황룡사에 주석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황룡사구층탑건립을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음이 분명하다. 황룡사에서 주석했고, 황룡사구층탑건립을 발원했던 안함(=안홍)으로 판단된다.

일연은 안함(=안홍)의 참서를 『동도성립기』, 『해동안홍기』라 하고,¹³¹⁾ 안함(=안홍)을 '밀본', '환회사', '노승' 등이라 다양하게 칭했다. 일연이 안함(=안홍)을 에둘러 감췄던 이유는 『삼국유사』의 거의 유일한 안함(=안홍)에 대한 구체적 서술인 [라-4]에 감춰져있을 가능성이 높다. [라-4]는 후대의 가필을 내포한다.

[라-4] 해동의 명현 안홍이 찬술한 『동도성립기』는 "신라 제27대에 여왕이 주가 되니 道는 있으나 威가 없어 구한이 침략한다. 만약 용궁 남쪽 황룡사에 구층탑을 세우면 이웃나라의 침입을 진압할 수 있다. 제 1층은 日本, 제 2층은 中華, 제 3층은 吳越, 제 4층은 托羅, 제 5층은 鷹遊, 제 6층은 鞞鞞, 제 7층은 丹國, 제 8층은 女狄, 제 9층은 穢貊이다"라고 했다(『삼국유사』 탑상, 황룡사구층탑).

종족명과 국명에 대한 가필은 12세기 초반 이후, 13세기 초반 이전에 행해졌다고 추정된다.¹³²⁾ 따라서 제 9층의 예맥(=고구려족=고려족)이 황룡사구층탑에 의해 제압된

128) 무엇보다도 자장이 귀국한 선덕여왕 12년(643)에 원효의 나이는 27세에 불과했다.
 129) 하도겸(2015, 앞의 논문, p. 114)은 '환회사'를 '환회지보살과 같은 존재'로 보았다.
 130) "日天子自身放光照于金殿 金殿光照于日宮"(『長阿含經』 卷 22, 世本緣品); "十五者名金殿天"(『正法念處經』 卷 25, 觀天品); "禪定中升天宮見金殿"(『居士傳』 卷 56, 陳參軍).
 131) 東晉 法顯(342~423)의 傳記도 『法顯傳』, 『法顯行記』, 『歷遊天竺記傳』, 『佛游天竺記』, 『佛國記』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다.

다는 가필은 12세기 후반과 13세기 초반에 펼쳐진 신라부흥운동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12세기 말의 이의민(실권: 1183~1196)이 주목된다.

[라-5] 이의민은 경주사람이다. 그의 아버지는 이의민이 푸른 옷을 입고, 황룡사 구층탑을 오르는 꿈을 꾸었다. (중략) 이의민은 옛날 참서의 龍孫十二盡更有十八子라는 예언을 믿고 왕이 될 꿈을 품고, 신라를 흥복할 뜻을 가졌다. (중략) 경주에 서는 木魅를 믿었는데, 이의민은 堂에 두고 제사를 지내면서 복을 빌었다(『고려사』 권 128, 열전 41, 반역 2, 이의민).

[라-5]의 '옛날 참서'가 안함(=안흥)의 참서라고 주장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황룡사구층탑에 올라 九韓을 제압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의민의 종교적 사상배경이 안함(=안흥)의 신라불국토설과 무관하기 어렵다.¹³³⁾ 일연이 안함(=안흥)에 대한 명시적 언급을 회피했던 하나의 이유는 안함(=안흥)의 신라불국토설이 신라부흥운동의 빌미를 제공해 고려왕조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¹³⁴⁾

둘째, '선덕여왕이 자신의 죽을 날을 예언했다'라는 서술의 해석문제이다. 신종원(1996)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염중섭(2008)은 석가모니가 자신의 열반을 3개월 전에 神力으로 예지했던 것과 같이 선덕여왕도 "상당한 수행력"으로 죽을 날을 예지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¹³⁵⁾ 물론 미래를 예지하는 '신력'이란 주로 밀교 승려들에 의해 주장된 불교의 신비적 요소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 3사는 '선덕여왕이 안함(=안흥)의 교시적 예언을 받들어 유언으로 남겼다'라고 해석된다.¹³⁶⁾ 그렇다면 선덕여왕의 죽을 날도 안함(=안흥)의 의해 예언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수문제 문헌황후의 죽음도 예정되었던 바와 같이 이뤄졌다고 했다. 문헌황후 獨孤伽羅(543~602)는 안함(=안흥)이 隋에 있었던 인수 2년(602) 8월 25일에 죽었다. 이에 대해 隋의 王劼는 "8월 22일에 꽃비가 내렸고, 23일에 神光이 비쳤고, 24일에 북쪽 하

132) 제 6층의 말갈은 제 7층의 단국(916~938) 즉 거란족의 遼(938~1125)에 의해 제압되었고, 제 7층은 제 8층의 여적(=여진) 즉 흑수말갈족의 金(1115~1234)에 의해 제압되었다(장활식, 2015, 앞의 논문, pp. 267~270). 그런데 고려고종 18년(1231)부터 신라를 침공하고 1234년에 金을 멸망시킨 몽골이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 8층의 여적(=여진=金)이 9층의 예맥(=고구려족=고려족)에 의해 극복되고, 제 9층의 고려가 마침내 황룡사구층탑에 의해 최종적으로 제압된다는 가필은 金(1115~1234)이 등장한 이후, 13세기 초에 몽골이 전면적으로 부각되기 이전에 행해졌다고 추정된다.

133) 이의민의 木魅신앙이 밀본 혹은 양지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있다(강은혜, 1989, 『豆 豆里(木郎)再考 : 도깨비의 명칭 分化와 관련하여』 『한국학논집』(계명대) 16, p. 67).

134) 장활식, 2016, 앞의 논문, pp. 132~134.

135) 염중섭, 2008, 『선덕왕지기삼사 중 제 3사의 고찰』 『사학연구』 91, p. 62; "爾時 世尊 即便捨壽 而以神力任命三月"(『大般涅槃經』 卷 1).

136) 이세호, 2010, 『신라중대왕권과 밀교』 『동국사학』 49, p. 269; 김복순, 2011, 앞의 논문, p. 219.

늘에서 자연의 음악소리가 들린 후에, 25일 새벽에 문헌황후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經文中에서 말했던 바와 같았다"고 했고, 또한 "여러 秘記가 예언했던 바와 같이 문헌황후는 묘선보살이었으며, 경문이 말했던 상서로운 징조가 모두 실현되었고, 승하 후에 하늘에서 종소리가 났으므로 문헌황후는 천상에서 다시 태어났다" 등이라 했다.¹³⁷⁾ 한편 천축출신의 밀교승려인 閻提斯那는 "공중의 음악소리는 문헌황후가 아미타정도에 태어났음을 천신들이 환영하는 소리"라고 해설했다.¹³⁸⁾

밀교적 색채의 점찰법에 능했던¹³⁹⁾ 원광도 자신의 죽음을 7일 전에 예지했으며, 입적할 때에 절의 동북쪽 허공에 음악이 가득했고, 기이한 향기가 절에 가득하여 사람들이 영험한 감응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¹⁴⁰⁾ 이런 기록들에 비추어볼 때, 선덕여왕의 죽음도 역시 음악, 향기, 神光 등과 같은 전조 혹은 부험의 영험함을 깨닫게 하는 형태로 예언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이런 예언은 밀교승려에 의해 생성되어, 참서에 기록되었다고 봐도 전혀 무리가 없다. 따라서 선덕여왕의 죽을 시점도 역시 안함(=안홍)에 의해 예언되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 3사의 "입론이 안홍의 언설"이었다는 신종원(1996)의 견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겠다.

셋째, 『별기』에 안함(=안홍)의 신라불국토설이 첨성대의 축조인연으로 적혀있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만약에 신종원(1996)의 견해대로 적혀있었다면, 첨성대축조는 안함(=안홍)에 의해 발원되었음이 분명하다고 결론지을 수가 있다.

『별기』에 대해 과학사학자들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기록" 혹은 "정체가 불분명한 전승자료"라 단정했다.¹⁴¹⁾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다. 이강래(1992)는 "『별기』는 신라 측의 고유한 자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하며", "『삼국사기』에는 채택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었고, 또한 오히려 『별기』 측의 전하는 바가 옳다고" 여겨진다고 했다.¹⁴²⁾ 김두진(2004)은 『별기』의 내용은 "대체로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가리킨다"라고 했다.¹⁴³⁾

『別記』가 '별도의 기록'임에는 이견이 없을 듯싶다. 『삼국사기』와 같은 正史로는 불

137) "便即升遐 與經文所說 事皆符驗...伏惟大行皇后 聖德仁慈 福善禎祥 符諸秘記 皆云妙善菩薩 ... 苑內夜有鐘聲三百餘處 此則生天之應顯然也"(『隋書』 卷 69, 列傳 34, 王劭).

138) "空發樂音 并感異香 具以問由 答曰 西方淨土名阿彌陀 皇后往生 故致諸天迎彼生也"(『續高僧傳』 卷 26, 閻提斯那); "空發音樂 因問閻提斯那"(『歷朝釋氏資鑑』 卷 5).

139) "年三十歲 思靜居修道 獨居三岐山...光於所住嘉栖岬 置占察寶"(『三國遺事』 義解, 圓光西學). 점찰법회는 『占察經』에 의거해 전생의 업보와 현생의 길흉을 점치는 법회이다.

140) "少覺不愈 經于七日 遺誠清切 端坐終于所住皇隆寺中...當終之時 寺東北虛中音樂滿空 異香充院 道俗悲慶知其靈感"(『三國遺事』 義解, 圓光西學).

141) 이문규, 2004, 앞의 논문, p. 5; 김일권, 2010, 「첨성대의 靈臺적 독법과 신라 왕경의 三雍제도 관점」 『신라사학보』 18, p. 7.

142) 이강래, 1992, 「삼국유사 인용 古記의 성격」 『서지학보』 7, p. 60.

143) 김두진, 2004, 「삼국유사 인용문과 그 성격」 『사학연구』 76, p. 90, 각주 4번.

수 없다. 『別記』는 “『古記』와 마찬가지로 단일 책자가 아닐 것”인데,¹⁴⁴⁾ 『삼국유사』는 『별기』를 3~4번 인용했다.¹⁴⁵⁾ [가-2]의 『별기』, 자장이 문수보살에게서 비결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은 『별기』, 단속사가 창건된 경위 등을 담은 『별기』가 있고, 신라와 백제가 맹약한 내용을 담은 『신라별기』가 있다. 자장과 관련된 『별기』가 주목된다.

[라-6] 후에 자장이 西學하여 오대산에 이르렀는데, 문수보살의 현신이 감응하여, 비결을 주고 당부하기를 “너희 나라의 황룡사는 석가불과 가섭불이 강연하던 땅이라서 연좌석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런 인연으로 천축의 무우왕(Asoka)이 황금과 쇠를 약간씩 모아서 바다에 띄웠다. 1,300여 년이 지난 연후에 너희 나라에 도착해, 불상으로 완성되어 황룡사에 안치된 것이다. 대개 위덕의 인연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라고 하였다. [주석: 『별기』에 적혀있던 예언대로 이뤄진 것이다] (『삼국유사』 탑상, 황룡사장육).¹⁴⁶⁾

[라-6]은 문수보살이 현신하여 자장에게 비결을 주고, 가섭불황룡사연좌석설과 유연국토조성연기설의 연관성을 설명했다는 내용이다. 물론 자장은 문수보살이 아니라 도리천의 천사로부터 비결을 받았다고 봐야하며,¹⁴⁷⁾ 또한 가섭불황룡사연좌석설과 유연국토조성연기설은 안함(=안흥)이 주창한 신라불국토설의 일부로 봐야한다.

그런데 [라-6]의 말미에 일연은 주석을 붙여 “与『別記』所載符同”이라 했다. ‘符’는 부호, 기호, 증거, 증표, 부적, 예언 등을 뜻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예언’으로 판단된다.¹⁴⁸⁾ 직역하면, “『별기』 소재의 예언과 똑같았다”라는 말이다. 자장이 唐의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로부터 가섭불황룡사연좌석설과 유연국토조성연기설을 듣게 될 것임을 그 이전에 이미 『별기』가 예언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예언을 했을 인물로는 안함(=안흥) 밖에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일연의 코드를 해석하면, [라-6]은 『별기』에 적혀있던 안함(=안흥)의 예언이 부험의 영험함을 가졌던 것임을 입증하는 기록이다. [가-2]와 [라-6]의 『별기』는 신라불국토설을 주창한 안함(=안흥)의 참서로 판단된다. 따라서 첨성대는 안함(=안흥)에 의해 축조가 발원되었음이 거의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144) 장활식, 2012, 앞의 논문, p. 114.

145) “別記云是王代鍊石築瞻星臺”(紀異, 善德王知幾三事); “与別記所載符同”(塔像, 皇龍寺丈六); “又別記云 景德王代”(避隱, 信忠掛冠); “新羅別記云 文武王”(紀異, 太宗春秋公).

146) “成安其寺 蓋威緣使然也 [原註: 与『別記』所載符同]”(『三國遺事』 塔像, 皇龍寺丈六).

147) 자장이 문수보살에게서 받았다는 梵偈(『三國遺事』 塔像, 臺山五萬眞身)는 도리천에서 승혜보살이 설교했던 내용(『大方廣佛華嚴經』 卷 16, 昇須彌山頂品)과 일치한다(김복순, 1990, 『신라화엄종연구』 민족사, p. 114).

148) ‘符驗’의 ‘符’와 뜻이 같다고 본다(“膺符命受圖籙必有以異於人者”, 『三國遺事』 紀異, 叙; “及覺說夢與之符同”, 『三國遺事』 塔像, 南白月二聖·努盼夫得·怛怛朴朴).

[라-7] 『별본』에 따르면 아유왕은 부처의 진신을 공양하지 못했음을 한스러워 하여 금과 철 약간 근을 모아 3번이나 불상을 주조했으나 이루지 못했다. (중략) 남염 부제 16개의 大國, 500개의 中國, 1만개의 小國, 8만 취락에서도 모두가 주조하지 못하였다. 마침내 新羅國에 이르자, 진흥왕이 文仍林에서 주조하여 불상을 완성하니 相好가 다 갖추어졌다(『삼국유사』 탑상, 황룡사장육).

[라-7]은 신라에서 생성된 사후거짓예언으로 평가되는 유언국토조성연기설인데, [라-6]의 직전에 배치되어 있다. [라-7]의 『별본』은 안함(=안흥)의 신라불국토설을 담고 있으므로 『동도성립기』 이외로 보기 어렵다. 일연은 [라-7]의 『별본』을 [라-6]에서 『별기』라 칭하여 연관성을 끊어버렸는데, 이 또한 '일연의 코드'로 판단된다.

넷째, 선덕여왕릉과 첨성대가 동지일출선에 의도적으로 맞춰졌던 것인가의 문제이다. 정확하게 맞춰져 있음은 <그림 2>에서¹⁴⁹⁾ 볼 수 있듯이 부정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확률은 매우 낮아 보이지만 우연의 결과는 아닐까?



<그림 2> 동지일출선에 정확하게 맞춰진 선덕여왕릉과 첨성대의 위치

도리천장례와 첨성대축조는 안함(=안흥)이 隋에서 들어왔을 『관정경』의 제 6권인 『佛說灌頂塚墓因緣四方神呪經』의 塔塚葬을¹⁵⁰⁾ 따른 것임이 분명하다고 본다. '탑총장'에서 '탑'은 첨성대라는 묘탑,¹⁵¹⁾ '총'은¹⁵²⁾ 낭산의 선덕여왕릉을 지칭한다.

149) 장활식, 2013, 앞의 논문, p. 132의 <그림 8>.

150) “佛語阿難葬法無數...我此國土 水葬·火葬·塔塚之葬 其事有三”(『佛說灌頂經』 卷 6).

151) 김중직(1431~1492)은 첨성대를 '석탑'이라 했다(“亨亨石塔迎人來 新羅舊物山獨在 不意更有瞻星臺”, 『佔畢齋詩集』 卷 2, 瞻星臺).

152) 왕의 무덤을 '陵', 일반인의 무덤을 '墓', 신분이 구분되지 않는 무덤을 '塚'이라 한다.

[마-1] 부처가 아난에게 “장례법은 무수히 있으나, 내가 있는 이 국토에는 水葬, 火葬, 塔塚葬의 세 가지만이 있다”고 했다(『불설관정경』 권 6).

[마-1]은 수장과 화장도 아니었던 선덕여왕의 장례가 탑총장이었을 수밖에 없었음을 말해준다. 불교의 윤회관은 신라의 전통적 죽음관과 마찬가지로 死後에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다고 본다.¹⁵³⁾ 따라서 선덕여왕의 주검이 낭산 위의 왕릉에 묻혔고, 선덕여왕의 영혼이 불교의 천상세계인 도리천으로 상생했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¹⁵⁴⁾ 선덕여왕의 장례절차는 [마-2]와 같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2] 금, 은, 보배로 꾸민 수레 위에 飛天仙人을 장엄한다. 악단이 鼓樂鈴鍾 소리를 내면, 哀樂을 표현하기 위해 찬탄하고 노래한다. 망자의 몸에 의복을 모두 갖추고, 棺과 槨에서는 미묘한 향기가 나도록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山野로 운송하는데, 산림은 수목이 울창하고 정연하여 빈 곳과 넘치는 곳이 없다. 무덤 주변에는 잣나무가 울창하게 하고, 碑闕을 儼然하게 세운다(『불설관정경』 권 6).

비천상들로 장엄된 상여가 움직이면, 악단과 함께 수많은 귀족과 백성들이 슬피하여 울거나 혹은 도리천에서의 상생을 기뻐하여 춤추고 노래하며 뒤를 따랐을 것이다. 『관정경』에 따르면, 佛道を 닦은 영혼은 주검으로부터 분리된 후, 7일, 14일, 21일, 혹은 49일째가 되는 날에 승천한다.¹⁵⁵⁾ 선덕여왕의 영혼은 진덕여왕 원년(647) 동짓날 새벽에 침성대를 통해 도리천으로 상생했다고 판단된다.¹⁵⁶⁾ 한편 문무왕은 자신의 장례를 탑총장으로 치루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마-3] 어찌 吳王의 北山무덤에서 金甁의 광채를 볼 수 있을 것이며, 魏主의 西陵望臺도 단지 ‘銅雀’이라는 이름만을 전할 뿐이다. 지난날 만사의 영웅도 마침내는 한 무더기 흙이 되어 그 위에서 樵童과 牧豎가 노래하며, 그 옆에서 여우와 토끼가 굴을 판다.¹⁵⁷⁾ 헛되이 재물을 쓰는 것은 서책에 꾸밈음만 남길 뿐이요, 헛되이 사람을 수고롭게 하는 것은 유혼을 구원하는 바가 아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슬프고 애통함이 끝이 없겠지만 이와 같은 일은 즐겨 행할 바가 아니다(『삼국사기』 문무왕 16년 7월).

153) 박선경, 1999, 「한국인의 죽음관」,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5, p. 121.

154) “山野造立墳塔...佛言阿難 是人精魂亦在亦不在”(『佛說灌頂經』 卷 6).

155) “或七日二三日乃至七七七日名籍定者”(『佛說灌頂經』 卷 12).

156) 동지는 제석의 사신이 인간의 선악을 살피는 팔왕일 중의 하루이다(“謂立春·春分·立夏·夏至·立秋·秋分·立冬·冬至 是爲八王日 天地諸神陰陽交代”, 『法苑珠林』 卷 88).

157) “樵牧歌其上 狐兔穴其旁”라는 내용은 『新羅文武大王陵碑』(682)에 “牧哥其上 狐兔穴其傍”으로 새겨져 있다. [마-3]은 당대로부터 전승된 기록임이 거의 확실하다.

문무왕은 “陵과 臺를 조성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신의 장례를 탑총장으로 거행하지 말라는 뜻이다. 문무왕의 장례가 火葬과¹⁵⁸⁾ 水葬을 결합한 형태로 치러졌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문무왕은 “유혼을 구원하기 위한 臺를 쌓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瞻星臺가 선덕여왕의 유혼을 구원하기 위한 臺였음을 말해준다. ‘유혼’이란 ‘죽은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을 말한다. 선덕여왕의 도리천장례와 침성대축조는 안함(=안홍)이 들어왔을 『관정경』 제 6권에 서술된 탑총장에 의거했을 것임이 거의 확실하다.¹⁵⁹⁾

다섯째, 침성대가 선덕여왕의 도리천장례와 관련된 구조물이 확실한가에 대한 문제이다. 물론 신종원(1996), 장윤성·장활식(2009), 장활식(2013)에 따르면 침성대는 선덕여왕의 도리천장례를 위한 구조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헌기록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침성대가 선덕여왕 몰년(647)에 축조되었다고 서술한 현존하는 최초의 문헌은 『삼국사절요』(1476)이다.¹⁶⁰⁾ 당대지성을 대표하는 예문관대제학과 성균관지사를 겸하여 지냈으며, 『삼국사절요』(1476), 『동문선』(1478), 『동국여지승람』(1481), 『경국대전』(1485) 등을 편찬 혹은 수찬했으며, 역사, 천문, 지리, 풍수 등에 모두 밝았던 서거정(1420~1488)은¹⁶¹⁾ 침성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바-1] 서거정(1420~1488)

침성대 아래에서 옛 춤을 추고 노래를 했더니 瞻星臺下舊調舞
하늘 첫머리를 갔다가오는 꿈을 밤에 꾸었다. 夜夢歸來天一頭¹⁶²⁾

고대의 장례식에서 신라, 고구려, 백제는 모두 가무를 행했었다.¹⁶³⁾ 침성대에서의 가무는 고대의 장례식에서 행한 가무와 마찬가지로 망자의 넋을 달래기 위함이 아닐 수

158) 이근직(2007, 「신라의 상장례와 능원제도」,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28, p. 208)은 문무왕이 火葬을 택한 것은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보았다.

159) 진평왕의 장례형태도 탑총장이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史料가 없어서 논하기 어렵다. 선덕여왕과 태종무열왕은 唐의 상장례를 따랐을 가능성이 높다(“始服中朝衣冠”, 『三國史記』 眞德王 3年 1月). 나당전쟁을 경험했던 문무왕이 신라의 전통적인 상장례를 따랐음은 분명하다(“服輕重 自有常科 喪制度”, 『三國史記』 文武王 21年).

160) “新羅作瞻星臺 累石爲之上方下圓 通其中人由而上高數丈”(『三國史節要』 新羅善德王 16年 1月). 한편 침성대가 천문관측대라는 주장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서 최초로 확인되며, 시기를 앞당겨 잡아도 『동국여지승람』(1481)으로 추정된다.

161) “令觀象監提調及解風水 宰相徐居正”(『成宗實錄』 卷 215, 19年 4月 12日).

162) “燕老鷲殘時冉冉 鷄林龜岫路悠悠 細馬馱紅少年事 十載青燈空白頭 歲月紫芝君邈邈 功名青簡我悠悠 瞻星臺下舊調舞 夜夢歸來天一頭”(『四佳集』 卷 29, 次韻孫上舍同年見寄).

163) “給軍樂鼓吹一百人 出葬于金山原”(『三國史記』 卷 43, 列傳 3, 金庾信-下); “高麗...葬則鼓舞作樂以送之...百濟...喪制如高麗...倭...親賓就屍歌舞”(『隋書』 卷 81, 列傳 46, 東夷); 나희라, 2014, 「고대의 상장례와 생사관」, 『역사와 현실』 54, pp. 179~185.

천왕사의 월명을 침성대로 끌어들이었다는 점에서 서거정은 사천왕사, 도리천, 침성대가 상호 연관되었음을 알았다고 봐야할 것이다.

[바-3] 여주 덕만이 薨했다. 여주는 3가지 일을 예견했는데, 꽃그림을 보고 향기가 없음을 알아챘던 것이며,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적의 침입을 알아챘던 것이며, 죽을 때와 침성대를 만들고 죽을 것임을 알아챘던 것이다(박상, 『동국사략』 권 1).¹⁷²⁾

士林의 맥을 이었던 박상(1474~1530)은 일견 엉뚱하게도 선덕여왕이 자신의 죽을 시점과 침성대를 축조하고 죽을 것임을 예언했음이 제 3사의 내용이라 했다. 침성대축조를 선덕여왕의 예언이라 했는데, 이 또한 선덕여왕이 안함(=안흥)의 교시적 예언을 받든 것이라 해석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도리천장례와 사천왕사건립에 관한 예언이 삭제된 자리에 침성대축조에 관한 예언이 들어서 있다. 의도적인 서술이었다면, [바-3]의 침성대는 도리천장례 및 사천왕사건립과 무관할 수가 없다.

[바-4] 김세렴(1593~1646)	
옛 월성을 지나면서	經過古月城
침성대 위에서 노래했다.	放歌星臺上
한 편의 시로 귀신을 슬퍼하고	一篇泣鬼神
천 년 전의 죽음에 조문했다.	千年弔淪喪 ¹⁷³⁾

인조대에 호조판서를 지낸 김세렴(1593~1646)이 침성대 위에서 노래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고대에서는 임종 직후에는 주로 낫을 했지만, 상여가 나갈 즈음에는 주로 가무를 행했다.¹⁷⁴⁾ 침성대에서 애도했던 귀신이란 선덕여왕의 영혼이며, 여기서 '천 년'은 '오랜 기간'이라기보다는 거의 정확한 기간이라 하겠다.

[바-5] 침성대 (김매순: 1776~1840)	瞻星臺
도리천의 무덤으로 보낼 속셈 하나를 위해	摠向忉陵輸一筭
하늘을 보는 노대를 드높이 쌓아올렸다.	露臺千尺爲看星 ¹⁷⁵⁾

172) “主德曼薨 主有知幾三事 見畫花知無香 聞蛙知兵 預言死期 又作瞻星臺及薨”(朴祥, 『東國史略』 卷 1). 朴祥은 서거정 이후의 四家(朴祥·成俔·申光漢·黃廷彧) 중의 1명이다.
 173) 『槎上錄』 附從事次韻; 『東溟集』 卷 4, 附從事次韻.
 174) 채미하, 2012, 「한국 고대의 죽음과 喪·祭禮」, 『한국고대사연구』 65, pp. 56~59.
 175) “媧皇鍊石語非經 武氏天樞德未馨 摠向忉陵輸一筭 露臺千尺爲看星”(『臺山集』 卷 3, 瞻星臺); 장활식, 2013, 앞의 논문, p. 134.

조선후기의 학자였던 김매순(1776~1840)은 [바-5]에서 선덕여왕의 영혼을 도리천으로 보내기 위해서 첨성대를 쌓았다고 했다. 한편 김매순과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조수삼(1762~1849)은 첨성대와 중국의 자은탑이¹⁷⁶⁾ 동일한 목적으로 건립되었다고 했다.

[바-6] 첨성대 (조수삼: 1762~1849)	瞻星臺
첨성대의 계단을 오르면	石臺登拾級
계단이 끝나면서 허공의 층계가 이어진다.	級盡卽層空
계단과 층계의 뒤섞임에 하늘이 무너질까봐	磅礴疑天墜
첨성대의 쟁영함에 鬼工은 수심에 젓는다.	崢嶸愁鬼工
첨성대 기반의 중심이 성도에 닿아있고	盤心星度近
꼭대기는 숨겨진 사다리로 통한다.	絕頂暗梯通
중국의 자은탑이	中國慈恩塔
첨성대의 제작과 같음을 전해 들었다.	聞言此製同 ¹⁷⁷⁾

[바-7] 자은사의 부도에 오르다(岑參: ±715~770)	登慈恩寺浮圖
자은탑의 기세는 터져 오른 듯	塔勢如湧出
홀로 높이 도리천의 궁전으로 솟아있다.	孤高聳天宮
자은탑의 꼭대기에는 인간세계를 벗어나는	登臨出世界
계단길이 허공에 비스듬히 놓여있다.	蹬道盤虛空
우뚝 솟아 神州 ¹⁷⁸⁾ 를 압박하는	突兀壓神州
자은탑의 쟁영함은 鬼工의 솜씨라 하겠다.	崢嶸如鬼工 ¹⁷⁹⁾

[바-6]은 첨성대의 정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층계가 허공으로 이어진다고 했고, [바-7]은 자은탑의 꼭대기에서 인간세계를 벗어나는 계단이 허공에 놓여있다고 했다. 이런 층계(=계단)란 인간세상과 도리천을 연결하는 삼도보계가¹⁸⁰⁾ 아닐 수 없다. 석가

176) 자은탑은 문덕황후의 도리천 왕생을 기원한 자은사 경내에 건립되었다. 唐高宗이 玄奘에게 명령해 654년(진덕여왕 8년)에 완성했던 인도식의 5층 전탑이었다(『大慈恩寺三藏法師傳』 卷 7). 문덕황후의 오빠인 長孫無忌(594~659)를 제거한 武則天(624~705)이 長安연간(701~704)에 개조하여 상층부의 원형을 잃어버렸다(“長安中摧倒 天后及王公施錢 重加管建至十層”, 『游城南記』 卷 1). 현재 7층이며, ‘大雁塔’이라 불린다.

177) 『秋齋集』 卷 4, 瞻星臺; 장활식, 2013, 앞의 논문, p. 143.

178) 여기서 ‘神州’는 赤縣神州(=중국)가 아니라, 제석천이 인간세계와 가까워짐을 경계하는 도리천 변방의 32天 혹은 도리천 전체(=33天)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79) 『全唐詩』 卷 198, 與高適薛據登慈恩寺浮圖. 唐의 天寶 11년(752)에 작성된 시문이다.

180) “爲佛世尊作三道寶階 左白銀·右頗梨·中黃金 從閻浮提金剛地際上忉利宮”(『佛說觀佛三昧海經』 卷 6, 觀四威儀品); “時天帝釋知佛當下 即使鬼神作三道寶階”(『摩訶摩耶經』 卷上); “即使鬼神作三道寶階”(『法苑珠林』 卷 50, 報恩篇); “帝釋使諸鬼神作三道寶階”(『經律異相』 卷 7); “爲佛造作三道寶梯”(『撰集百緣經』 卷 9, 化生比丘緣).

모니는 자신의 입멸을 예지하고, 도리천으로 올라가, 그곳에 왕생해 있던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서 3달 동안에 걸쳐 환희원에서 설법을 펼치고, 인간세상으로 복귀한 후, 곧 열반에 들었다.¹⁸¹⁾ 도리천에서 설법을 베푼 석가모니는 제석이 귀신들에게 명령해 만들어둔¹⁸²⁾ 三道寶階(=三道寶梯)를 밟고 인간세상으로 내려왔다고 했다. [바-6]과 [바-7]의 '鬼工'은 삼도보계를 만든 鬼神 혹은 그와 같은 기술을 가진 장인을 말한다.

唐의 岑參(715~770)은 '자은탑'을 '자은사 부도'라 했다. '浮圖(=浮屠)'란 묘탑을 말한다. 첨성대는 선덕여왕의 도리천 왕생을 기원한 묘탑으로 평가되었는데, [바-7]의 자은탑도 문덕황후의 도리천 왕생을 기원한 묘탑이었다고 했다.

[바-6]의 제 5구인 "盤心星度近"은 매우 흥미로운 서술이다. '盤心'은 '첨성대 기반의 중심', '星度'는 '별이 운행하는 각도'이다. "첨성대의 중심에 별의 운행하는 길이 닿아 있다"로 직역된다. 그런데 "태양의 星度は 대개 동지에 맞춰져있다"¹⁸³⁾고 했다. 만약 "盤心星度近"에서 '星'이 태양이라면,¹⁸⁴⁾ 제 5구는 "첨성대의 중심을 동지의 일출이 통과한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수삼(1762~1849)이 <그림 2>에서와 같이 선덕여왕릉과 첨성대가 동지일출선과 일치하도록 배치되었음을 알았는지가 궁금하지만, 이에 대한 해답은 찾을 수가 없었다.¹⁸⁵⁾

그러나 첨성대축조가 안함(=안홍)에 의해 발원되었음은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본다. 『선덕왕지기삼사』조 제 3사의 전체내용은 안함(=안홍)의 예언을 바탕으로 한 일연의 서술로 판단되었고, 첨성대 축조인연도 안함(=안홍)의 참서인 『동도성립기』 즉 『별기』의 신라불국토설을 바탕으로 했던 것임이 일연의 서술에서 드러났다. 선덕여왕릉과 첨성대가 동지일출선에 맞춰진 이유는 안함(=안홍)이 隋에서 들어왔다고 추정되는 『관정경』 제 6권의 탑총장을 따랐기 때문으로 판단되었으며, 『삼국사기』에 기록된 문무왕의 유언은 선덕여왕의 장례가 탑총장이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첨성대는 선덕여왕 영혼의 도리천 상생을 위한 묘탑이었고, 첨성대보다 약 7년 뒤에 세워진 중국의 자은탑(=현재의 대안탑)도 당태종 문덕황후의 도리천 상생을 기원했던 묘탑으로 평가되었다.

181) "佛在忉利天歡喜園中 波利質多羅樹下 三月安居...時天帝釋知佛當下 即使鬼神 作三道寶階"(『佛昇忉利天爲母說法經』卷 1). 舍衛國的 祇園精舍(=祇樹給孤獨園=祇洹精舍)에서 도리천으로 상승하여, 3개월 후에 僧迦施國으로 내려왔다고 한다("有國名僧迦施 佛上忉利天三月爲母說法來下處", 『高僧法顯傳』卷 1).

182) 삼도보계는 도리천에서 건축·조각·공예를 담당한 毘紐羯磨(=毘首羯磨=工巧天) 등이 만들었다고 했다("爾時帝釋勅毘首羯磨 爲佛作三道寶階", 『辟支佛因緣論』卷 上).

183) "日至所在星度 多舉冬至爲例"(『諸家曆象集』卷 1, 天文, 山堂考索); "冬至之日 日南極"(『春秋左傳正義』卷 22).

184) "星躔改候 觀臺望瑞 雲物呈祥"(『桂苑筆耕』卷 10, 都統王令公賀冬至).

185) 소릉("葬文德皇后于昭陵", 『舊唐書』卷 3, 貞觀 10年 11月)과 자은탑의 배치는 동지일출과 무관해 보이며, 자은탑의 방향에서도 별다른 의미가 발견되지 않았다.

V. 맺음말

선덕여왕은 전생에서 德叉迦(Taksaka)龍王과 鬼子母(Hariti)神의 사이에서 길상천녀(=공덕천)로 태어나, 사왕천의 북쪽 하늘인 毘沙門天에 있는 阿尼曼陀城의 功德華光(=妙華福光)동산에서 때를 기다리다가, 신라마야부인의 태로 들어갔을 것이다.¹⁸⁶⁾ 현생에서 길상천녀는 전불시대부터 부처가 머물렀던 신성한 불국토인 신라 땅에서 신라白淨王과 신라摩耶夫人의 덕만공주로 태어났다.¹⁸⁷⁾ 신라마야부인의 옆구리에서 태어난 신성한 덕만공주가 길상천녀의 화신이었던¹⁸⁸⁾ 『금광명경』, 『전단향화성광묘녀경』 등이 입증했을 것이다.

선덕여왕에게는 신라불국토를 재건할 역사적, 종교적 사명이 있었다. 高祖인 법흥왕이 전불시대 이후에 신라 땅에서 소멸되었던 불교를 다시 정착시켰고,¹⁸⁹⁾ 曾祖인 진흥왕이 칠처가람인 흥륜사와 영흥사를 완성하고 황룡사를 착공했고,¹⁹⁰⁾ 祖인 전륜성왕 동륜태자는 일찍 사망했으나,¹⁹¹⁾ 父王인 진평왕이 황룡사를 거의 완성했고,¹⁹²⁾ 드디어 자신이 칠처가람인 분황사와 영묘사를 건립하고 불사리탑을 세워 황룡사를 완성할 필요가 있었다. 신라의 도리천을 수호할 사천왕사의 건립은 자신의 죽음으로부터 10여년 뒤로 미루어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⁹³⁾ 선덕여왕은 백제와 고구려의 협공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음에도 재위 15년(646)에 황룡사구층탑을 마침내 완성하고, 이듬해에 세상을 떠났다. 선덕여왕은 '복덕과 재물의 女神'이었지만,¹⁹⁴⁾ 당시의 모든 신라인들이 재물의 구애 없이 행복을 누렸다고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선덕여왕은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 아미타불의 서방정토로 왕생하는 대신에 도리천을 내세로 선택했다. 길상천녀의 화신이었던 자신의 주검이 문힐 낭산을 신라의 도리

186) “毘沙門天王有城名曰阿尼曼陀..是我常止住處”(『合部金光明經』 卷 6, 功德天品); “於佛左畫吉祥天 於佛右作我多聞天像”(『金光明懺法補助儀』 卷 1, 嚴淨道場方法); “鬼子母夫字德叉迦...女字功德天”(『七佛所說神呪經』 卷 4).

187) “眞平王立諱白淨 眞興王太子銅輪之子...妃金氏摩耶夫人”(『三國史記』 眞平王 元年).

188) “昔我善德女君 宛若吉祥聖化 誕膺東后 景仰西方”(『孤雲集』 卷 1, 善安住院壁記).

189) “肇行佛法”(『三國史記』 法興王 15年).

190) “興輪寺成”(『三國史記』 眞興王 5年); “乙卯歲王妃亦創永興寺”(『三國遺事』 興法, 原宗興法·厭羈滅身); “改爲佛寺賜號曰皇龍”(『三國史記』 眞興王 14年).

191) “太子銅輪卒”(『三國史記』 眞興王 33年). 전륜성왕은 鐵輪·銅輪·銀輪·金輪의 순서로 등장한다(“四輪者俱舍云金銀銅鐵輪 一二三四洲”, 『妙法蓮華經玄義釋籤』 卷 15). 銅輪태자의 동생인 진지왕이 金輪이었다(“諱舍輪 或云金輪”, 『三國史記』 眞智王 元年).

192) “皇龍寺設百高座”(『三國史記』 眞平王 35年); “王親幸皇龍寺”(『三國史記』 眞平王 44年).

193) 칠처가람(흥륜사·영흥사·황룡사·분황사·영묘사·사천왕사·담엄사) 중에서 담엄사에 대해서는 史料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건립연대와 성격 등에 대한 추론이 불가능하다. 이는 각훈과 일연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194) “我當隨其所須之物 衣服飲食臥具醫藥及餘資產”(『金光明經』 卷 2, 功德天品).

천으로 설정하고, 그 아래에 사천왕사를 세워 신라불국토를 수호할 것임을 주문했다. 선덕여왕의 영혼은 침성대를 통해 도리천으로 상생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선덕여왕의 삶은 안함(=안홍)이 설계한 신라불국토설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고 본다.

선덕여왕의 영혼이 어떤 방법으로 도리천으로 올라갔는지는 불분명하다. 부처나 보살처럼 순식간에 이동했거나,¹⁹⁵⁾ 옥면처럼 혼자서 빠르게 날아갔거나,¹⁹⁶⁾ 주몽이 황룡의 머리를 밟고 승천했던 것처럼¹⁹⁷⁾ 황룡을 타고 승천했거나, 혜숙과 안함(=안홍)처럼 구름을 타고 유유자적하게 갔거나,¹⁹⁸⁾ 침성대 위의 삼도보계를 직접 밟고¹⁹⁹⁾ 올라갔을 수가 있겠다. 그 어떤 경우라도 동지의 아침 햇살을 타고 火星光을 날리면서 승천했을 것으로 상상된다.

도리천에서 선덕여왕이 어떤 신분으로 왕생했는지도 필자로서는 가늠하기가 어렵다. 현세에서 전륜성왕이었다면 제석과 나란히 앉았거나 제석으로 환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혹은 인도의 마야부인처럼 天人으로 태어나 북쪽 정원인 환희원에서²⁰⁰⁾ 잠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겠다. 선덕여왕이 도리천으로 상생한지는 벌써 약 1,360년이지만, 도리천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이제 겨우 14일째에 접어든다.²⁰¹⁾ 인간세계와 천상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평안한 모습을 “환희원의 묘화림에 있는 길상천녀와도 같다”²⁰²⁾라고 한다. 선덕여왕의 내세가 현세보다 평안할 것임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논문투고일 : 1월 14일, 논문심사완료일 : 2월 14일, 논문게재확정일 : 2월 15일]

195) “稽首足下遶佛三匝 忽然不現還兜術天”(『經律異相』卷 44).

196) “禮佛撥屋梁而去...至山下弃其身”(『三國遺事』感通, 郁面婢念佛西昇).

197) “不樂世位 因遣黃龍來下迎王 王於忽本東岡履龍真昇天”(『廣開土王陵碑』).

198) “其村人有自峴西來者...行半許里躡雲而逝”(『三國遺事』義解, 二惠同塵).

199) 장활식, 2013, 앞의 논문, p. 143.

200) “譬如三十三天見歡喜園皆生安樂”(『大方等大集經菩薩念佛三昧分』卷 10). 마야부인이 석가모니를 임신했을 때에 白淨王은 藍毘尼(Lumbini) 동산을 歡喜園(=歡喜苑)처럼 꾸몄다(“令淨掃灑藍毘尼園 更使栽植諸妙花果 流泉浴池 悉令清潔 欄楯階陛 皆以七寶而爲莊嚴 翡翠鴛鴦 鸞鳳凰鸞 異類衆鳥 鳴集其中 懸繪幡蓋 散花燒香 作諸伎樂猶如帝釋歡喜之園”, 『過去現在因果經』卷 1). 환희원은 신라왕궁 북쪽의 월지(=안압지)를 연상시킨다(“宮內穿池造山 種花草 養珍禽奇獸”, 『三國史記』文武王 14年 2月).

201) 도리천의 하루는 인간세상의 100년에 해당한다(“此間百歲 正當忉利天上一日一夜耳”, 『長阿含經』卷 7). 물론 석가모니는 이런 시간의 차이를 초월한 듯하다.

202) “如歡喜園中吉祥天女處妙花林”(『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卷 15).

[참고문헌]

1. 사료 및 자료

- 『三國史記』, 『三國史節要』, 『世祖實錄』,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東史綱目』, 『東國史略』(朴祥), 『海東高僧傳』, 『三國遺事』; 『新羅文武大王陵碑』, 『皇龍寺九層木塔刹柱本記』, 『高仙寺誓幢和上碑』, 『廣開土王陵碑』, 『貞孝公主墓誌』; 『孤雲集』, 『桂苑筆耕』, 『四佳集』, 『佔畢齋詩集』, 『石洲集』, 『谿谷集』, 『槎上錄』, 『東溟集』, 『秋齋集』, 『臺山集』; 『周書』, 『隋書』, 『舊唐書』, 『資治通鑑』; 『續高僧傳』, 『集古今佛道論衡』, 『歷代三寶紀』, 『禮舍利塔儀式』, 『沙彌律儀要略增註』, 『高僧法顯傳』, 『大唐西域記』, 『大慈恩寺三藏法師傳』; 『全唐詩』, 『藝文類聚』, 『古今注』, 『游城南記』; 『佛說灌頂經』, 『金光明經』, 『合部金光明經』, 『金光明最勝王經』, 『妙法蓮華經』, 『佛說觀佛三昧海經』, 『長阿含經』, 『起世經』, 『大吉祥天女十二契一百八名無垢大乘經』; 『佛說華手經』, 『正法念處經』, 『大方廣佛華嚴經』, 『摩訶摩耶經』, 『撰集百緣經』, 『七佛所說神呪經』, 『過去現在因果經』, 『勝鬘師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 『廣弘明集』, 『法苑珠林』, 『佛祖統紀』, 『釋氏通鑑』, 『歷朝釋氏資鑑』; 『居士傳』, 『高峰龍泉院因師集賢語錄』,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 『金光明懺法補助儀』, 『大方廣佛華嚴經感應略記』,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 『大方等大集經菩薩念佛三昧分』, 『妙法蓮華經玄義釋籤』, 『辟支佛因緣論』, 『往生西方淨土瑞應傳』, 『諸家曆象集』, 『華嚴經行願品疏鈔』.

2. 단행본 및 저서

- 고익진, 1986, 『한국밀교사상연구』 불교문화연구소.
- 고익진, 1989, 『한국고대불교사상사』 동국대학교.
- 김복순, 1990, 『신라화엄종연구』 민족사.

3. 논문류

- 강은해, 1989, 『豆豆里(木郎)再考』 『한국학논집』(계명대) 16.
- 강재철, 1991, 『선덕여왕지기삼사조 설화의 연구』 『동양학』 21.
- 광승훈, 2009, 『신라시대 지리산권의 불사활동과 신행선사비의 건립』 『신라문화』 34.

- 광승훈, 2014, 「해동고승전 안함전 연구」 『한국고대사탐구』 17.
- 김두진, 2004, 「삼국유사 인용문과 그 성격」 『사학연구』 76.
- 김복순, 2007, 「자장의 생애와 율사로서의 위상」 『대각사상』 10.
- 김복순, 2011, 「삼국유사 명랑신인조의 구성과 신인종 성립의 문제」 『신라문화제 학술발표회논문집』 32.
- 김복순, 2012, 「6세기 삼국사기 불교관련 기사 存疑」 『신라문화』 39.
- 김상현, 1996, 「사천왕사의 창건과 의의」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17.
- 김선주, 2009, 「선덕여왕의 즉위 배경과 통치적 특징」 『페미니즘 연구』 9-2.
- 김연민, 2012, 「밀본의 약사경 신앙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65.
- 김일권, 2010, 「첨성대의 靈臺적 독법과 신라 왕경의 三雍제도 관점」 『신라사학보』 18.
- 김재경, 1978, 「신라의 밀교 수용과 그 성격」 『대구사학』 14.
- 나희라, 2014, 「고대의 상장례와 생사관」 『역사와 현실』 54.
- 문명대, 1976, 「신라 신인종 연구」 『진단학보』 41.
- 민영규, 1993, 「신라 불교의 정립과 삼계교」 『동방학지』 77.
- 박미선, 2011, 「신라 점찰법회와 밀교」 『동방사학』 155.
- 박선경, 1999, 「한국인의 죽음관」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
- 박태화, 1975, 「한국불교의 밀교경전 전래攷」 『한국불교학』 1.
- 변동명, 2004, 「충숙왕의 密敎大藏 金字寫經」 『역사학보』 184.
- 소현숙, 2014, 「隋의 國家大寺 大興善寺」 『중국사연구』 88.
- 신용철, 2007, 「초기 신라 불탑관에 대한 고찰」 『문화사학』 27.
- 신종원, 1992, 「안흥과 신라불국토설」 『중국철학』 3.
- 신종원, 1996, 「삼국유사 선덕왕지기삼사조의 몇 가지 문제」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7.
- 염중섭, 2008, 「선덕왕지기삼사 중 제 3사의 고찰」 『사학연구』 91.
- 옥나영, 2007, 「관정경과 7세기 신라 밀교」 『역사와 현실』 63.
- 윤월, 2007, 「능가경의 선사상」 『한국선학』 16.
- 유복모·강인준·양인태, 1981, 「경주 첨성대의 위치해석에 대한 고찰」 『한국과학사학회지』 3-1.
- 이강래, 1992, 「삼국유사 인용 古記의 성격」 『서지학보』 7.
- 이근직, 2007, 「신라의 상장례와 능원제도」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28.
- 이기동, 1981, 「선덕여왕의 시대: 첨성대 논쟁에 덧붙여서」 『한국과학사학회지』 3-1.
- 이기백, 1973,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의의」 『진단학보』 36.
- 이동근, 2000, 「삼국유사의 한문학사적 위상」 『우리말글』 20.
- 이문규, 2004, 「첨성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과학사학회지』 26-1.
- 이세호, 2010, 「신라중대왕권과 밀교」 『동국사학』 49.

- 이인철, 1999, 「분황사 창건의 사회·경제적 기반」 『신라문화』 20.
- 장윤성·장활식, 2009, 「첨성대 회위정 가설」 『한국고대사연구』 54.
- 장지훈, 1999, 「자장과 분황사」 『신라문화』 20.
- 장지훈, 2001, 「신라 불교의 밀교적 성격」 『선사와 고대』 16.
- 장활식, 2012, 「첨성대 옛 기록의 분석」 『신라문화』 39.
- 장활식, 2012b, 「경주첨성대의 파손과 잘못된 복구」 『문화재』 45-2.
- 장활식, 2013, 「경주 첨성대의 방향과 상징성」 『신라문화』 42.
- 장활식, 2015, 「해동고승전 석안함전의 분석」 『신라문화』 46.
- 장활식, 2016,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일본의 실체」 『신라문화』 47.
- 정병삼, 2011, 「삼국유사 신주편과 감통편의 이해」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32.
- 정병조, 1994, 「불교의 우주관」 『과학사상』 10.
- 조경철, 2009, 「신라의 여왕과 여성성불론」 『역사와 현실』 71.
- 조원영, 1999, 「신라 중고기 불교의 밀교적 성격과 약사경」 『역사와 세계』 23.
- 조원영, 2001, 「신라 중대 신인종의 성립과 그 미술」 『역사와 경계』 40-41.
- 주보돈, 2010, 「한국 고대사회 속 여성의 지위」 『계명사학』 21.
- 채미하, 2012, 「한국 고대의 죽음과 喪祭禮」 『한국고대사연구』 65.
- 채상식, 2001, 「신라사에 있어서 황룡사의 위상과 그 추이」 『신라문화제학술발표 논문집』 22.
- 하도겸, 2015, 「삼국유사 탐상 황룡사장육조의 초주 환희사와 원효」 『한국사학사 학보』 31.

- Das, D., 2005, "Place of Goddess Bimala in the Shakti Cult of Hindu Mythology," Orissa Review, September~October 2005.